

‘보령머드박람회’ 개막...“해양선도국가 실현”

팬데믹 이후 첫 국제행사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대천해수욕장 일원 개최

주제관, 체험관 등 7개 전시관
머드 속 인류·생명 이야기 담아
국제학술행사, 기업설명회 진행

머드탕, 미끄럼틀 등 체험행사
K-POP 콘서트 등 공연 ‘다채’
20~24일 아시안컵 국제요트대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첫 국제행사인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가 16일 화려한 막을 올린다.

박람회가 열리는 한 달간 국내를 넘어 세계인이 즐기는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머드축제’도 펼쳐져 올 여름을 뜨겁게 달군다.

충남도과 보령시가 공동 주최하고, 해양수산부가 후원하는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가 7

월 16일 개막해 8월 15일까지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해양산업 박람회와 축제가 결합된 국내 최초 하이브리드형 박람회로, 지난 2018년 국제행사 개최 승인을 받은 이후 5년 동안의 준비를 마치고 개막한다.

박람회는 ‘해양의 재발견, 머드의 미래가치’라는 주제로 머드의 효능과 우수성을 알려 해양과 머드의 가치를 찾고 레저, 치유 등 해양신산업 발전을 모색한다.

박람회장은 해양머드 주제관, 해양머드&신산업관, 해양머드 웰니스관(치유의 숲), 해양레저&관광관, 해양머드 체험관, 특산물 홍보관, 해양머드 영상관 등 7개 전시관이 운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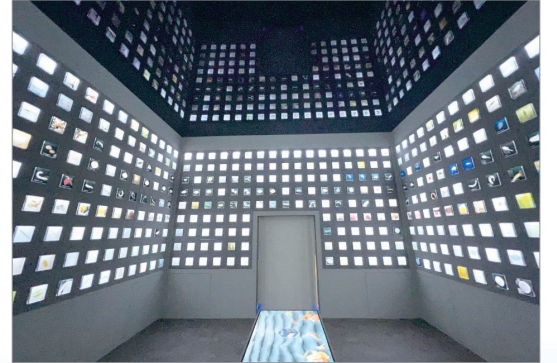
이 중 해양머드 주제관은 갯벌 생성과정부터 갯벌 생물 콘텐츠, 갯벌 복원, 머드 활용 제품 등 머드에 대해 알기 쉽게 소개한다. 특히 충남 갯벌에서 서식하는 562종의 생물을 LED사진 큐브로 연출, 전시한다.

이와 함께 국제학술행사와 기업설명회가 진행된다.

또 관람객 휴식과 포토존 등 공간이 조성된 만남의 광장과 푸드코트 등 68개 편의시설, 중



해양머드 주제관-머드의 선물 블루카본 전시 모습.



해양머드 주제관-머드의 생명 '큐브' 모습.

합상황실 및 대표소 등 운영시설 43개를 마련했다.

개막식은 16일 오후 6시 30분 머드광장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박람회 홍보영상 및 주제영상 상영, 개막 세리머니, 초청가수 공연, 해상멀티미디어쇼 등이 진행된다.

20일에는 K-POP 콘서트가 열리는 등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오후 8시마다 미디어아트쇼가 열려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박람회 개최 관련 생산유발효과는 941억 4600만 원, 취업 유발효과 1462명, 부가가치 유발효과 474억 4700만 원으로 추정된다.

한편 국내 첫 아시아세일링연맹 공인 요트대회인 ‘아시안컵 보령국제요트대회’는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보령요트경기장과 대천해수욕장 수역에서 진행된다.

〈관련기사 3, 8, 9면〉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 041-930-2824
/김정원 jwkim87@korea.kr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가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린다. 사진은 보령해양머드박람회장 전경. 사진/정진우

2022 BORYEONG SEA MUD EXHIBITION
보령해양머드박람회
2022.7.16~8.15

해양의 재발견 머드의 미래가치

보령해양머드박람회

BORYEONG SEA MUD EXHIBITION

2022 7.16 - 8.15

2022 7.16 - 8.15

개최기간
2022. 7. 16.(토) ~ 8. 15.(월) (31일간)

개최장소
충청남도 보령시 신항동 2282 (주행사정) 대천해수욕장 일원

프로그램

이용요금

구분	입장요금(원)	적용범위	
보통권	일반	12,000	· 일반: 만 19세~64세 · 청소년: 만 13세~18세 · 어린이: 만 4세~12세
	청소년	9,000	
	어린이	6,000	
단체 할인권	일반	9,000	· 단체할인 · 내국인: 예매 및 당일판매 20명 이상 · 외국인: 예매 및 당일판매 10명 이상 · 특별할인(인원에 상관없이 할인) · 기타: 만 65세~74세 · 보령시민(주민등록가인)
	청소년	7,000	
	어린이	5,000	
무료입장	· 국가(독립)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호자 1인 · 만 75세 이상인 자 · 만 4세 미만 아동, 공무 수행자, 국민외교사절단 및 수행자 · 단체 인솔자(20명 기준 1인), 단체관람 유치여행사 가이드 1인 · 학교단체 인솔 교사		

행사장 운영안내 041)930-2842

주최 충청남도 보령시 주관 (재)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 후원 해양수산부



도 베이벨리 메가시티 건설 추진 속도낸다

전담팀 꾸리고 첫 회의 개최
건설방안, 세부사업계획 논의
경기도와 협의해 공동대응해야

충남도가 신성장동력 창출과 대한민국 경제 성장 견인을 위한 ‘베이벨리 메가시티 건설’ 조기 추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도는 7월 12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베이벨리 메가시티 추진 전담팀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전담팀(TF)을 꾸리고 12일 만에 첫 회의를 개최, 베이벨리 메가시티 건설 사업 추진 로드맵 작성에 돌입했다.
베이벨리 메가시티는 천안·아산·당진·서산 등 충남 북부권과 평택·안성·화성·오산 등 경기 남부권을 아우르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소경제 등 대한민국 4차산업을 선도

하는 글로벌 경제 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전담팀은 베이벨리 메가시티 세부 사업 추진, 경기도와의 협력 등 공동대응을 위해 지난 5일 구성했다.
전담팀 팀장은 도 기획조정실장이 맡고, 정책기획관과 경제소상공·투자입지·미래성장·에너지·물관리정책·건설정책·도로철도항공·해양정책·해운항만 등 9개 과장이 팀원으로 참여했다.
도 출연기관 중에는 충남연구원과 충남테크노파크 등이 합류했다.
전담팀 역할은 ▲베이벨리 메가시티 건설 협력 추진 ▲부서별 담당 사업 추진 및 신규 사업 발굴 ▲경기도와 협의 및 공동 대응 등이다.
부서별 담당 업무는 ▲환경해경제자유구역청 복원 및 민간상생발전위원회 설치 ▲천안 종축장 부지 등 대규모 최첨단 국가산단 조성 ▲미래 신성장

및 4차산업 과제 발굴 ▲수소에너지 융복합 산업벨트 조성 ▲한강수계의 충남 서북부권 용수 이용 협력 ▲아산시 둔포면 일부 평택지원법 적용 방안 모색 등이다.
또 ▲아산만 씨클형(평택-아산-천안) 순환철도 신설 ▲안산 대부도~보령 해저터널 간 한국판 골드코스트 조성 ▲당진평택국제항 물류 환경 개선과 대중국 수출 전진기지 육성 ▲아산만권 발전 방향 제시, 신규 사업 발굴 등도 세부 사업으로 추진한다.
전담팀은 앞으로 정기 및 수시 회의를 통해 부서별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첫 회의는 ▲베이벨리 메가시티 건설 추진 계획 설명 ▲부서별 사업 추진 계획 발표 ▲도 출연기관 제안 발표 ▲베이벨리 메가시티 추진 방안 및 경기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종합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베이벨리 메가시티 추진 전담팀이 1차 회의를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베이벨리 메가시티 건설은 충남과 경기 양 도 간 협력을 바탕으로 산업경제, 항만물류, 관광, 사회 간접 자본(SOC)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핵심 과제인 만큼, 도 관련 부서와 출연기관으

로 전담팀을 구성했다”라며 “앞으로 각종 사업 계획 등을 공유·점검하며, 오는 10월까지 부서별 담당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기획관 041-635-3146

“충남도서관으로 여름 북캉스 떠나요”

31일까지 영화 등 프로그램 운영
충남도서관은 오는 31일까지 ‘도서관 북캉스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일에는 문화교육동 강당에서 애니메이션 영화 ‘코코’, 27일은 하늘정원에서 ‘리틀포레스트’ 영화를 볼 수 있으며, 상영 시간은 오후 7시이다.
27일은 영화 상영 전 사전 이벤트로 1인 1책 도서 기증 시 작품 씨앗을 교환해주는 책씨앗 도서기증 캠페인을

진행해 도서관의 자료 수집 역할을 알리는 홍보의 장도 마련한다.
21일과 28일 오후 7시부터는 문화교육동 다목적실1에서 ‘책 읽어주는 사서’ 김희영 사서의 ‘김상옥의 양자공부’와 ‘사서고생’ 박광일 사서의 ‘죄의 문제’ 강연을 들을 수 있다.
전시는 여름휴가 때 읽으면 좋은 책을 주제로, 31일까지 북큐레이션을 운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서관(☎041-635-8000)으로 문의하거나 누리집



충남도서관 전경.
(https://library.chungna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남도서관 041-635-8061

“교차로 우회전 시 꼭 멈춰야”

위반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보행자 있든없든 일시정지

충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회)는 도 경찰청과 ‘도로교통법 제27조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에 따른 홍보와 단속을 강화한다.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우측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있는지 정지 후 확인해야 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서행해 우회전 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해야 한다.

전방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한 뒤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 가능하다.
우회전 후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일 시에는 서행하면서 우회전 할 수 있다.
위반 시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 승합차·화물차는 7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충남자치경찰위원회 041-635-5895

빈틈없는 방역, 안전한 머드축제

도, 머드박람회 특별방역 추진
충남도는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기간 중 특별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방역대책은 도와 박람회조직위, 감염병관리지원단, 보령시가 합동으로, 코로나19 재유행 우려 및 감염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방역 ▲의료 ▲응급 3개 분야에서 마련했다.
방역 분야는 행사장 손소독제 비치,

실내의 마스크 착용 점검 강화 및 실내 음료 취식 자제를 권고하는 근무조를 편성해 운영한다.
각 전시관 입구에는 비대면 발열체크기를 설치했으며, 유증상자는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박람회장은 전문소독업체가 주기적 전면 소독을 실시하고, 화장실이나 샤워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수시로 소독할 계획이다.

관람객들이 1m 이상 거리를 둘 수 있도록 현장 관리직원을 배치하고, 실내 전시관도 4㎡당 1명 이하를 유지한다.
직원들도 주2회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며, 관람객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했다.
의료 분야는 임시선별진료소 뿐만 아니라 행사장 인근에 진단-검사-치료가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운영하며, 사전에 확보해 놓은 먹는 치료제는 부족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한다.
/감염병관리과 041-635-4383

휴가철 산림 불법행위 특별단속
쓰레기 투기 적발 시 엄중 조치

충남도는 7~8월 산림 내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한다.
도는 15개 시군과 명산 및 산간 계

곡 등을 대상으로, 산간계곡 내 불법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에 야영 및 취사, 임산물 불법 굴·채취, 생활쓰레기 및 오물 투기 등을 중점 단속한다.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허가 없이

임목·산나물 등 임산물의 굴·채취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도는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산림자원과 041-635-2572

농민회 조직하고 농촌계몽 앞장

대한의 청년, 윤봉길
윤봉길의사 상하이 의거 90주년
6) 월진회를 창립하다



월진회기.
월진회의 주요 사업은 농촌부흥운동이었다.

윤봉길은 야학을 운영하면서 한편으로 농민의 경제 자립을 위하여 농민회를 조직하는 등 농촌부흥운동을 펼쳤다.
처음에 시작한 것이 목계(沐溪) 농민회로 1927년 3월에 조직되었다. 목계농민회에서는 두레 정신을 바탕으로 공생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하였다.
이에 따라 고구마 재배법을 개선했고 양잠 및 부업을 권장하였으며, 부업 장려 방안의 하나로 축산을 적극 권장했다. 이때 ‘수내제도’라고 하는 특별한 방식을 이용하였다.
수내제란 돈이 없어 돼지를 살 수 없는 농민에게 돼지를 사주고 새끼를 낳으면 그 절반은 기른 농민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은 다른 농민에게 한 마리씩 주는 제도를 말한다.
농민회에서는 이외에도 공동구매조합을 만들어 운영하였는데 농산물을 공동으로 판매하고, 일용품이나 비료 등을 공동으로 구매하는 방식이었다. 이와 같은 목계농민회의 농민운동은 월진회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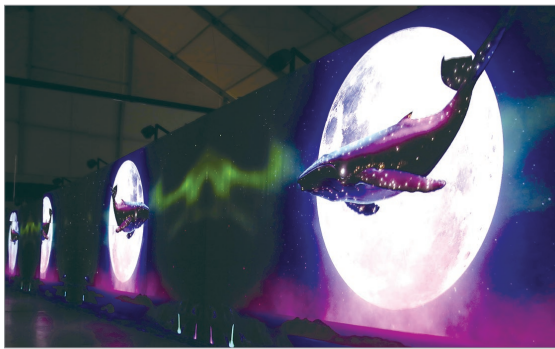
윤봉길은 1929년 4월 월진회(月進會)를 조직하고 회장에 추대되었다. 이사에는 정종갑, 정종호, 고문에는 윤창의 등이 선임되었다.
윤봉길은 월진회의 기를 제적하였는데, 흰색 바탕에 3줄의 청색을 가운데에는 무궁화 꽃을 넣어 백의민족과 삼천리 금수강산, 그리고 무궁하게 발전한다는 뜻을 담았다.
월진회는 윤봉길의 망명으로 중단되었다가 해방 후 재조직되어 현재 일본, 대전, 광명, 논산 등 각지에 지부를 두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 상 기
충남대 국사학과 명예교수



해양머드 주제관.



해양머드 영상관.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 제공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입구.



머드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마무리작업 중이다. /보령시 제공

“너도?! 나도!! 머드!!” 머드의 매력에 ‘흠뻑’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주제관 등 7개 전시관 운영

562종 해양생물 큐브전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유행) 이후 국내에서는 처음 개최하는 국제행사인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가 펼쳐진다.

박람회의 핵심인 전시관은 ▲주제관 ▲머드&신산업관 ▲웰니스관 ▲체험관 ▲레저&관광관 ▲영상관 ▲특산품 홍보관 등 7개 전시관으로 구성·운영된다. 생명, 치유, 산업, 미래 등 해양과 머드 속에 담긴 인류와 생명의 이야기를 7개로 나눠 생생하게 담아냈다.

해양머드 주제관

서해 갯벌의 탄생, 생성과정과 유네스코에 등재된 충남 갯벌에 서식하는 562종의 생물, 오염·개발 등으로 파괴된 머드 생태환경과 복원 사례 등을 소개한다. 또 해양 이산화탄소 흡수원인 블루카본, 세계와 보령에서 생산하는 머드 제품, 머드의 미래 활용 방안 등을 살필 수 있다.

특히 충남 갯벌에서 사는 생물표본 562종을 투명 아크릴 큐브형태로 쌓아 올려 생물 다양성의 보고인 갯벌을 상징화했다. 공간 중앙에 있는 터치스크린을 누르면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했다.

해양머드&신산업관

머드산업, 기업들이 생산 중인 머드소파와 머드 매트, 머드화장품 등 제품, 신재생 에너지 생산



1해양머드 주제관 2해양머드&신산업관 3해양머드 체험관 4해양레저&관광관 5해양머드 영상관 6특산품 홍보관 7해양머드 웰니스관 8머드 체험존

현황을 소개하는 충남 에너지관 등을 만나볼 수 있다.

해양머드 웰니스관

머드하이드로테라피관, 아토피센터, 스파핏&풋스파, 싱잉볼 등 4개 관으로 구성, 각종 머드 치유 프로그램 등을 받을 수 있다. 싱잉볼은 고대부터 치유에 활용된 전통 명상도구로, 표면을 치면 맑은 소리가 고요하게 울려 퍼지고 진동을 만들어 심신의 안정을 돕는다.

해양레저&관광관

해양레저 모빌리티 및 스마트 유틸리티 기업들이 생산한 보트와 요트, 캠핑카, 캠핑용품, 구명용품 등을 전시, 해양레저산업의 현주소를

가늠할 수 있다.

해양머드 체험관

수중로봇 운전 기술과 산업잠수, 머드팩 테스트, 샌드아트, 빨소라 색칠, 머드 컵·비누 만들기, 머드 탄생석 팔찌, 머드 도자기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해양 문화 체험은 무료 프로그램(해양직업체험 및 공예체험)과 유료 프로그램(머드공예체험 및 해양놀이체험)으로 각각 진행

돼 선택하면 된다.

특산품 홍보관

충남 시군의 관광산업과 특산품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특산품 홍보관 34개 전시 부스에서 도내 15개 시군에서 생산한 우수 농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해양머드 영상관

보령 머드와 해양의 무한한 가치를 담은 이야기를 볼 수 있다. 대형 미디어 파사드(외벽 영상)를 통해 몰입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며, 화려한 색채의 영상을 보면 마치 고래 등 해양생물들과 함께 바다 속을 여행하는 기분이다.

이외 박람회에서는 웰니스 컨퍼런스, 환황해포럼, 축제 산업화 세미나, 기업설명회 등을 진행한다. 웰니스 컨퍼런스는 7월 27~28일 개최, 국내외 해양웰니스산업 정책 및 사례, 발전방안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한다.

도 관계자는 “전시관은 해양 및 머드를 소재로 해양신산업과 머드산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모든 관람객이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이라며 많은 관람을 당부했다.

/해양정책과 041-635-4766

/김정원 jwkim87@korea.kr

K-POP·EDM 해변공연, 여름밤 수놓는다

11차례 공연, 미디어아트쇼

초대형 머드탕 등 체험존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기간 다채로운 이벤트가 열려 눈길을 끈다.

대전해수욕장 해변에는 특설무대를 설치, K-POP, 락, 재즈, EDM 등 다양한 장르 공연이 11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7월 16일 박람회 개막식 및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20일 오후 8시에는 K-POP 콘서트, 22일 오후 8시에는 조선폭-POP 공연을 선보인다.

머드 체험존도 빼놓을 수 없는 즐길 거리다. 초대형 머드탕, 머드바가지, 머드 터널 등 시설이 마련돼 체험할 수 있다.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키즈존도 운영된다. 또 EDM 공연과 함께 물이 아닌 머드 원액과 컬러머드를 이용한 머드 대포 등도 있다.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오후 8시 대전해수욕장 머드 광장 앞에서 미디어 아트쇼가 열려 챙기면 좋다. 아울러 7월 23일에는 전국 어린이 생대회, 30일에는 청소년 머드 커버댄스 페스티벌 등 특별 이벤트가 진행된다.

한편 관람객 편의를 위해 푸드코트, 해피맘 서비스센터, 반려동물 보호소, 물품보관소 및 휴대전화충전소 등 시설과 보령머드콜, 주차장을 운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정원 jwkim87@korea.kr

보령머드박람회 ‘범도민지원협’ 출범

도내 기관·단체장 700여 명

관람객 유치에 역량 결집

충남도는 7월 8일 보령문화예술회관에서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범도민지원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범도민지원협의회 구성원인 도내 기관·단체

장 등 각계 대표 700여 명은 9개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과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 및 역량 결집을 돕는다.

전영환 협의회장은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회원 모두가 힘을 합칠 것”이라고 다짐했다.

/공동체정책과 041-635-3476





석탄화력 폐쇄지 고용위기 해법 찾는다

도, 발전사 경영진·노조 간담회
정부에 고용 지원대책 마련 촉구

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 폐쇄 지역 고용 위기 대응과 대체 발전소 도내 건설, 수소 에너지 전환 등 대체 신산업 발굴 등을 위해 팔을 걷었다.
도는 7월 12일 중부·서부·동서발전 등 발전 3사 경영진, 노조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석탄화력발전 폐기 계획에 따른 액화천연가스(LNG)발전

대체 건설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따른 고용 대책 ▲수소·암모니아 등 대체 신산업 발굴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대한 입장을 정리,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정부에 전달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 현재 정부에서 수립 중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점 대응할 방침이다.
도내 석탄화력발전소는 보령 8기,

당진 10기, 서천 1기, 태안 10기 등 29기로, 전국 57기의 절반을 넘고 있다.
도내 에너지 발전량은 전국의 22.9%로 1위에 달하며, 석탄화력 발전 비율은 전국의 48.5%로 역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도내 에너지 발전량의 48%는 외부로 보내고 있다.
도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는 2020년 12월 27기에 이어, 2025년 4기, 2028년 1기, 2029년 3기, 2030년 2기, 2032년 2기 등이다.

/에너지과 041-635-3458

수소기업 국제 협력 관계망 확장

클러스터 입주기업 해외 진출 지원

충남도는 7월 5일 천안 신라스테이 호텔에서 ‘한-영 수소기업 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충남 수소 국가 혁신 융복합단지(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국내 수소기업 10곳, 영국의 주요 수소기업 11곳, 도와 충남테크노파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교류회는 양국 사업 소개, 사례 발표, 주제 발표, 질의응답, 기업 간 상담회 등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 양국 기업은 기업 간 1대1 상담회를 통해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한국 코멘텍과 영국 인텔리전트 에너지, 한국 발맥스기술과 영국 에이에프시 에너지가 각각 향후 협

력 논의를 위한 기밀 유지 협약을 체결했다.
또 한국 오버플러스파워와 영국 티어 코팅스(Teer Coatings)는 국제 공동 연구개발(R&D) 사업 제안을 위한 사전 논의 시간을 갖고 내년 상반기 과제 제안서를 제출하기로 협의했다.

/산업육성과 041-635-2922



‘한-영 수소기업 교류회’에서 기업 간 상담회를 하고 있다.

청양 구기자차 홍콩 수출길 연다

홍콩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

충남 청양 특산품인 구기자차에 대한 홍콩 소비자의 제품 인지도와 구매 의향이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구기자차의 해외수출 시장개척을 위해 5월

23일부터 6월 8일까지 만 19세 이상 홍콩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2차연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홍콩 소비자의 구기자차에 대한 인지도와 구매의향은 각각 63.0%, 74.3%로, 국내 59.8%, 53.0%보다 각각 높았다.

구매 요인 1순위는 건강(62.1%)이었다.
도 농업기술원은 성공적인 홍콩 수출길을 열기 위해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개발을 제시했다.
생산 측면에서 젊은 소비자층 또는 여성을 목표시장으로 설정하고, 제품은 20~40대 젊은 소비자층이 선호하는 음용 편리성이 강조된 아티디형태 개발을 제안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 041-635-6091

홍주읍성 옥터 앞 기적의 샘물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이
알려주는 충남학
- 홍주읍성 옥터 앞 샘물

홍성군 홍성읍성 옥터 앞에는 천주교 순교와 관련한 유명한 우물이 전해온다. 1481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홍주읍성 안에 3개 우물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3개 중의 하나가 현재의 홍주읍성 옥터 앞에 있는 우물이다. 1872년 제작된 ‘홍주지도’에도 홍주읍성 우물이 확인되고 있다.
홍주읍성 옥터 앞에는 옛 홍성감찰지청 울타리에 있었다. ‘재판소 물’로 불리던 이 우물은 옛부터 맛이 특별히 좋을 뿐만 아니라 병을 치유한다는 소문이 확산돼 많은 사람들이 애용했다. 주변 식당에 이 우물물을 떠다주고 품삯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들도 여럿 있었다.
특히 홍주읍성 옥터 앞의 우물은 천주교 순교와 관련이 많다. 과거 천주교 박해시절에 홍주읍성에서 수많은 천주교인들이 수난을 당했다. 홍주읍에

간해서 술한 매질과 고문을 당하던 순교자들의 얘기가 많이 전해온다.
홍주읍성 옥터 앞의 우물은 천주교 순교자들의 고문에 사용했던 우물로 전해온다. 충청도의 첫 순교자였던 원시장 베드로는 홍주목사로부터 배교를 강요받으며 모진 고문을 받았다. 하지만 아무리 심한 고문에도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
홍주목사는 원시장 베드로를 열려죽이려고 마음먹었다. 온몸을 결박하고 찬물을 뿌려서 밖에 내놓으라고 명령했다.
결국 원시장 베드로는, 1793년 12월 17일 새벽에 동사하여 순교했다. 충청도 천주교 첫 순교자의 순교에 홍주읍성 옥터 앞의 샘물이 사용된 것이다.
홍주읍성 옥터 앞의 우물물은 기적의 샘물로도 전해오고 있다. 홍주읍에 갇힌 천주교 신자들은 술한 고문을 받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다.
그런데 이튿날이 되면 상처가 말끔하게 사라지고 몸이 멀쩡했다고 전한다. 홍주읍성 옥터 앞의 우물물을 마시고 몸에 바르면서 기적적으로 치



홍주읍성 옥터 앞 샘물.

유가 된 것이다. ‘홍주순교록’ ‘한국천주교회사’ 등에 기적의 우물 이야기가 기록되어 전해온다.
홍주읍성 주변에는 월계천과 동헌과 옥터를 비롯하여 여섯 곳의 천주교 순교현장이 있다. 해마다 홍성의 천주교 순교 성지를 찾아오는 순례객이 늘고 있다. 코로나 직전까지는 매월 3000여명에 가까운 순례객이 찾아왔으며 연간 순례객이 3만여 명 정도로 집계되었다.
이제 홍주읍성 옥터 앞 기적의 샘물은 새로운 명소로 재도약할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홍성군이 홍주읍성 복원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필요한 스토리텔링을 잘 만들어 홍보하면 역사적인 사실과 함께 천주교순교성지로 많은 각광을 받을 것이다.

/김정현 내포구비문학연구소장

북방 5개국 온라인 국방 교류전

청소년 100여 명 참가 요리 시연

충남도는 7월 9일 북방 5개국 청소년 온라인 국방 교류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폐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류전에는 한국, 중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 청소년 100여 명이 참가해 각국의 다양한 요리를 시연하며 이

국의 음식문화를 주제로 소통했다.
5월 개막식을 시작으로 총 6회에 걸쳐 온라인을 통해 진행했으며, 회차마다 요리 시연과 함께 각국 문화 등을 실시간 중계했다.
한편 이번에 참여한 국가들은 올해 한국과 수교 30주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제통상과 041-635-3367

충남형 사회보험료 신청하세요

8월 5일까지 도내 사업주 대상

충남도는 8월 5일까지 2022년 2분기분 충남형 사회보험료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23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10인 미만 고용 중인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사업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한다.
해당 사업주에게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4대 사회보

험료 사업주 부담금(국민연금·고용보험료 20%, 건강·산재보험료 100%)을 지원한다.
다만 사업주 본인과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지원이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사업장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천안은 천안시청과 동남구청, 아산·계룡·청양은 시·군청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경제소상공과 041-635-2212

충남 사회적기업 육성 한단계 도약

도, 우수 자치단체 선정

충남도는 고용노동부 주관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심사 결과 우수상에 선정됐다.
도는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교육센터 운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 및 전국 최초 융자 손실보상 기

금 운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 관계자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취약계층 일자리제공 등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재정지원·유통·판로개척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경제과 041-635-3973

자동이동기기 수혜기업 모집

24일까지 온라인 신청

충남도는 7월 24일까지 ‘2022년 3차 전주기 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혜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지원 분야는 ▲제품화 촉진 ▲통합 기술 지원 ▲시험평가 및 인허가 지원 ▲임상·실사용 평가 지원 등이다.
지원 대상은 의지보조기기 또는 자동이동기기 관련 제품을 제조하거나 부품을 생산·판매·개발하는 기업이

며, 신청은 온라인 제출 방식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www.chungnam.go.kr), 아산시청(www.asan.go.kr), 건양대 산학협력단(https://kuicf.konyang.ac.kr), 한국산업기술시험원(www.ktl.re.kr), 재활공학연구소(www.kcomwel.or.kr/lab-rehab)에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통합 접수처(☎041-622-7547)로 문의하면 된다.
/산업육성과 041-635-3932

계약 심사로 재정 건전성 확립

상반기 예산 150억 절감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상반기 추진한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을 대상으로 계약 심사한 결과, 올 상반기 예산 150억 원을 절감하고 안전·시공 품질을 향상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상반기 진행한 계약 심사는 ▲공사 323건 ▲용역 241건 ▲물품 구매 239건 등 총 803건 6444억 원 규모다.
아울러 도 감사위는 계약 심사를 통해 단순히 감액만 한 것이 아니라 과소 설계는 안전·품질 향상을 위해 사업비를 증액했다.
/감사위원회 041-635-5438

폭언·폭행 악성 민원 안됩니다
도, 민원실서 모의훈련 실시

충남도는 7월 8일 도청 민원실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 부터 안전한 민원실 조성을 위해 하

반기 모의훈련을 했다.
훈련은 민원 공무원에게 폭언과 폭력을 가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했다.
도는 부차형 카메라(웨어러블 캠)도 훈련에서 활용해 비상상황 대응 역량을 높였다.
/자치행정과 041-635-3685



“10만 원 저축하면 10만 원 지원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월소득 200만 원 이하 15~39세

충남도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8월 5일까지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 소득 2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근로활동을 통해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최대 3년간 정부가 10만 원(기초생활 수급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은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입대상은 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이하인 만 15~39세 청년이며,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가구 기준 512만 1080 원), 가구 재산은 대도시 3억 5000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000만 원 이하인 청년이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고, 10시간의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급자족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최대 3437명을 신규 모집할 계획이며, 가입은 출생일에 따라 복지포털(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복지포털 신청 시 출생일 끝자리가 ▲1, 6인 청년은 월요일(18, 25일) ▲2, 7 화요일(19, 26일) ▲3, 8 수요일(20, 27일) ▲4, 9 목요일(21, 28일) ▲5, 0은 금요일(22, 29일)에 신청할 수 있다.

해당기간 내 신청하지 못했다면 8월 1~5일 신청 가능하다.

/사회복지과 041-635-4245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도, 14일 조례 개정안 공포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계기”

충남도는 14일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을 확대했다.

전용 주차구역은 신축 시설 및 공공 건축 시설의 경우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기존 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2% 이상 설치해야 한다.

개정 이전에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500세대 이상일 경우에 충전시설 설치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이면 설치 대상이다.

또 충전시설 설치 수량도 확대해 앞으로는 기축 시설에도 총 주차대수의 2%에 달하는 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신축 시설도 기존 0.5% 이상에서 5% 이상으로 대폭 늘렸다.

충전시설 종류(급속)에 따른 설치 비율도 강화해 공공시설 및 공공이용시설은 충전기의 10% 이상을, 공공주차장은 20% 이상을 급속 충전시설로 해야 한다.

/푸른하늘기획과 041-635-2743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

충남 최서단에 위치해 ‘서해의 독도’라 불리는 태안 격렬비열도가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최종 지정됐다. 도는 7월 4일 격렬비열도를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본격 시행됐다고 밝혔다. 도가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에 대해 2017년 연구용역을 추진한 이후 6년 만이다. 이번에 신규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된 ‘격렬비열도항’은 해양수산부 유인 등대와 기상청 서해중합기상관측기지가 있는 북격렬비도에 조성된다.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에 따라 격렬비열도항은 국가 안보 및 영해 관리, 선박 피항을 주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중국어선 불법 조업 신속 대응 등 효율적인 영해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2030년 안에 선박 접안이 가능하도록 부두를 조성할 방침이다.

/해운항만과 041-635-4821

충청남도가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를 지원합니다!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금 신청하세요!

충청남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이란?
직무 특성상 사고 위험이 높은 배달노동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산재보험 가입과 유지를 지원하여 사회적 안전이 보장되고, 안전배달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신 청

2022.07.10. ~ 2022.12.15.(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대 상

충남 도 내 플랫폼 배달노동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공고일 기준 충청남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산재보상보험법 제125조 ①에 따른 퀵서비스 업종 종사자

지 원

산재보험료 노동자 부담금 90% 최대 1년간 지원(지원기간 내 소급 지급)
※ 지원 대상 기간 : 2021.12.01. ~ 2022.11.30.

방 법

산재보험료 지원 접수시스템 신청 및 문의 “충남일터넷 <http://cnilter.or.kr>”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을 클릭하여 접수

절 차

접수시스템 접속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버튼 클릭

신청정보 입력
신청서 항목별 온라인 작성

신청완료 확인
신청접수 완료화면 확인

신청 접수 완료
신청 서류 등록 완료

대상자 안내
지급 대상자 개별 문자 안내

보험료 지급
개별 안내 후 개인계좌 입금

문 의

충청남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 041-330-4943

충청남도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충남도사민정협의회

장마철과 ‘창괘’

농업 관련 충청 사투리
-창괘, 창괘의 충남말

“여름두 되기 전이 맨날 비가 와 싸니 올 창괘 농산 글렀어.”
“에허, 창괘가 기니 짧으니, 좁쌀이 크구 작으니.”
‘창괘’는 ‘참깨’의 충남말로 장마철에 수확하는 작물이다. ‘참깨’는 4~5월에 심어 7월에 수확한다. 참깨는 6월이면 꽃을 피우고 꼬투리를 맺기 시작한다. 장마가 일찍 시작되면 참깨 꼬투리는 여름 물기 전에 비에 젖는다. 여름 꼬투리에 씨알이 들어차는데 참깨의 두꺼운 꼬투리는 비에 젖으면 쉽게 썩는다. 안에 있는 씨알은 거뭇 거뭇 빛깔이 변한다. 그래서 참깨는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베어 말려야 한다. 장마가 길게 이어지는 해에는 영락없이 참깨 농사 버린다. 위 첫 예문은 장마가 일찍 찾아와 참깨 농사를 망치게 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번째 예문은 참깨와 관련된 관용어다. 참깨 알갱이는 아주 작다. 좁쌀도 참깨와 별반 다르지 않은 크기다. 둘 다 손톱보다도 작고, 아이들 코딱지보다도 작다. 그런 참깨가 길면 얼마나 길 것이며, 짧으면 얼마나 더 짧겠는가. 좁쌀이 크면 얼마나 클 것이며, 작으면 얼마나 더 작겠는가. 충청도 사람들은 비유를 좋아한다. 비유를 이해하려면 조금 더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직설적인 말보다 말하는 속도가 느리다. 충청말이 느린 까닭이 그렇다. 조금 느린 대신 비유는 참 재밌다. 말의 맛이 오래 가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 ‘참깨가 길으니 짧으니, 좁쌀이 크다 작다’ 따지는 것은 하찮은 일이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서로 잘났다고 다투는 행위를 흉잡아 이르는 말, ‘못난 사람들이 서로 잘 났다구 싸우고 있네.’ 하는 직설보다 얼마나 재밌고 여유로운가.

/이명재 충청언어연구소장

“전국 최고 교육복지 충남도립대로 오세요”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 돌입

충남도립대학교는 대전·충청·세종지역 전문대학 연합으로 찾아가는 고교 입학 박람회에 참가한다.

고교 입학 박람회는 고등학생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 대학 특징점을 소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활동이다.

충남도립대는 ▲우송고(대전·18일) ▲천안여자고(8월 25일) ▲천안정수고(〃 26일) ▲태안여자고(9월 16일) ▲당진고(〃 21일) 등에서 입시 홍보를 한다.

전문대 고교연합 입학 박람회 접수



고교 입학박람회 참여 모습.

는 9월까지 지속되며 참여를 원하는 고교는 링크스쿨(<https://www.linkschool.co.kr/>)에 접속한 후 ‘대전·

충청·세종 전문대학 연합입학박람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충남도립대 041-635-6699



어린 꽃게 50만여 마리 방류 서천·홍성·보령 등 6개 시군 대상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도내 연안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어린 주꾸미에 이어 어린 꽃게 50만여 마리를 6개 시군(서천·홍성·보령·서산·당진·태안)에 방류했다. 어린 꽃게는 연구소 내에서 어미꽃게 관리를 통해 부화한 유생들 전갑폭 1.0cm 내외로 성장시킨 것으로, 내년 봄이면 상품가치가 있는 크기로 성장한다. 꽃게는 불법조업 및 남획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변화에 따라 어획량 변동이 크고, 지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 041-635-7768

천수만에 어린 새조개 방류

수산자원 확보, 어업인 소득 ↑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도내 연안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천수만 새조개 서식지에 어린 새조개 50만여 패를 방류했다.

연구소는 4월 7일 천수만에서 포획한 어미에서 생산된 수정란을 자체 개발한

대량 인공부화 기술로 3개월간 관리해 1~3cm의 어린 새조개를 생산했다.

연구소는 방류뿐만 아니라 지난 2020년부터 천수만 새조개 서식지의 수질과 퇴적물 환경을 매 분기 모니터링하고 있다.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 041-635-7773

헬기 투입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 천안 등 5개 시군 6367ha 대상

충남도는 천안 등 5개 시군 6367ha를 대상으로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

를 한다.

대상 지역은 ▲천안 133.7ha ▲공주 3025.7ha ▲부여 3103.6ha ▲서천 76.8ha ▲예산 27.6ha 등이며, 항공방제에는 산림청 헬기 29대가 투입된다.

도는 항공방제 시 양봉농가 등에 피

해가 없도록 약제 살포 전후 피해 예방사항을 관련부서와 공유하고 해당 시군에 사전 안내했다.

방제지역에 대한 입산도 금지할 예정이다.

/산림자원과 041-635-2576

식민지 시기 개인의 수집과 반출

국내외 충남문화유산

다시보기

2)도쿄국립박물관 오구라 컬렉션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문화재 반출사에서 반드시 언급되는 인물이 있다면, 바로 오구라 다케노스케(小倉武之助, 1870~1964, 이하 오구라)이다.

오구라는 1904년 처음 한반도에 건너온 후, 대구를 거점으로 활동한 사업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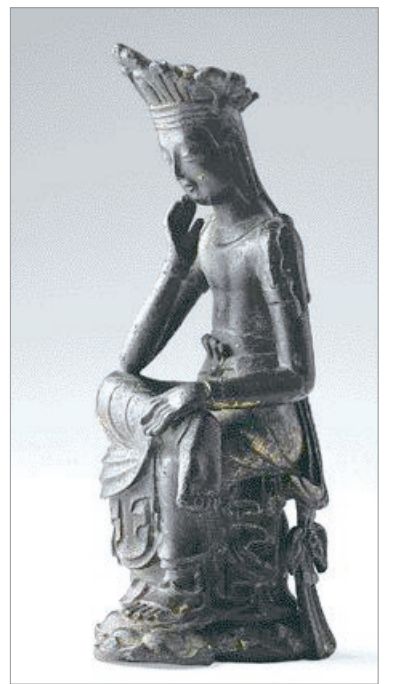
그는 사업을 통해 쌓은 재력으로 1920년경부터 1945년까지 선사 유물부터 조선 왕실의 복식까지 시대와 종류를 가리지 않고 수집했다.

오구라가 수집한 유물의 전모는 알 수 없으나, 증언에 따르면 해방 직후 그가 일본에 가져간 것만 트럭 7대분이라고 한다. 그러고도 1964년 그의 대구 저택에서 숨겨둔 유물 142점이 발견되었다.

현재 가장 많은 유물이 소장된 곳은 도쿄국립박물관이다. 2005년에 발간된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100여 점으로 파악된다.

현전 유물만으로도 엄청난 규모인데, 그가 유물 구입에 돈을 아끼지 않았다는 일화만도 다수 전해진다.

이러한 그의 수집품 중 충남문화유산으로는 대표적으로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이 있다. 이 불상은 7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며, 크기가 16cm이다. 보관을 쓴 모습에서 국보 78호가 연상되기도 한다. 1941년 「오구라 다케노스케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씨 소장품 전관목록(小倉武之助氏所藏品展覧目録)에는 이 불상이 공주 부근 산성의 탐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조선총독부 발간 「조선고적도보」에는 경성 공소원 판사 미야케 조사쿠(三宅長策, 1868~1969) 소장품으로 되어 있어, 오구라 이전에도 일본인이 소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오구라 컬렉션 중에는 출토지를 알 수 없는 고대유물이 많다. 이는 당시 일본인들의 한국 고대사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개인에 의해 도굴과 반출이 자행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찬란했던 역사와 문화도 잃어버린 나라에서는 보호받지 못함을 역설적으로 오구라 컬렉션은 말하고 있다.

/이유리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충남도정

신문 무료 구독신청 및 취소는
충청남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 041-635-2035

사회복지 단기파견직 상시모집

모집기간: 사업 종료일까지 상시모집

절.찬.공.고

신청방법

서비스원 홈페이지
채용공고 참조

문의전화

041-330-2472

채용인원

단기 대체인력(돌봄직, 조리직) 17명

근무내용

사회복지시설에 파견되어 돌봄, 활동보조, 기타 업무지원 등 돌봄 및 조리업무 제공

응시자격

만 2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사람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한 사람

근무조건

고용형태: 계약직, 파견일정에 따라 계약 체결, 개인별 상이
근무형태: 09:00~18:00 내 최소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 근무
보수수준: 충청남도 생활임금(10,510원), 주휴수당, 교통비(일 5천원) 지급



“충남의 아름다운 섬에서 힐링하세요”

행정안전부·한국섬진흥원 선정

7월 이달의 섬 ‘보령 고대도’

찾아가고 싶은 여름 섬 ‘웅도’

행정안전부와 한국섬진흥원이 주관한 7월 ‘이달의 섬’에 보령 고대도가, ‘찾아가고 싶은 여름 섬’에 서산 웅도가 각각 선정됐다.

‘이달의 섬’은 우리나라 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매달 선정해 섬의 역사와 문화, 축제 등을 소개하는 사업이다.

7월 이달의 섬에 선정된 보령 고대도는 태안해안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섬으로 물속이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로 깨끗한 청정해역이다.

기암괴석과 금사홍송으로 둘러싸인 당산 해수욕장과 섬 남쪽 끝에 있는 자갈 해수욕장 등은 피서객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다.

특히 고대도는 1832년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와 섬에 머물며 주민에게



고대도 전경.

서적과 약품을 나눠주고 포도주 재배법을 전파한 개신교 선교사 ‘칼 귀츨라프’를 기념해 2014년부터 매년 7월 칼 귀츨라프의 날을 제정, 기념행사를 열고 있어 근현대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찾아가고 싶은 여름 섬’은 계절이

나 주제별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섬을 선정해 관광자원을 알리는 사업이다. 찾아가고 싶은 여름 섬에 선정된 서산 웅도는 ‘푸른 여름 밤하늘을 보기 좋은 캠핑 섬’을 주제로 뽑혔다.

섬의 모양이 곰이 웅크리고 있는 형상을 닮아 웅도(熊島)라고 불리며, 고



웅도 전경.

조선 왕의 후예들이 정착했다고 추정되는 곳으로 다양한 역사 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다리인 유두교가 물때에 따라 바닷물에 잠기는 모습이 사회관계망(SNS)에서 화제가 되면서 사진 찍기 좋은 곳으로

유명해져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선정 관련 자세한 정보는 한국섬진흥원 사회관계망 계정(페이스북 ‘섬소집’, 인스타그램 ‘오하섬’)과 한국관광공사 누리집 ‘대한민국 구석구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운항만과 041-635-2794



대형 재난 의료적 대응 역량 UP 충남도는 오는 11월까지 대형 및 다수의 사상자가 예상되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의료적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 훈련을 한다. 지난달 30일까지 실시한 상반기 훈련은 동남(공주·논산·계룡·금산), 서북(당진·서산·홍성·태안), 동북(천안·아산·예산), 서남(청양·부여·보령·서천) 총 4권역으로 나눠 진행했으며, 도·시군·소방 재난 업무담당 공무원 70여 명이 참여했다. /보건정책과 041-635-2644

꿀벌 폐사 재발 방지하려면?

양봉농가 대상 현장교육 실시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7월 12일 부여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여·금산·청양군 양봉농가와 화분매개벌을 이용하는 시설채소 농가를 대상으로 ‘양봉산업 안정화를 위한 현장 특별교육’을 했다.

도 농업기술원은 8월 10일 보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령·아산·서산시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2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충남도 농업기술원 041-635-6172

복지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8월 31일까지 국민 누구나

충남사회서비스원은 ‘2022 복지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기간은 7월 14일부터 8월 31까지이며, 복지 분야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은 최우수상(1팀), 우수상(2팀), 장려상(5팀), 참가상(100명)을 포함, 총상금 550만원 규모로 개최된다.

참가 희망자는 충남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cn.pass.or.kr)에서 참가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은 후 작성하여 이메일(cnwf@cn.pass.or.kr)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108명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시상금 및 시상품이 제공된다.

공모전 선정 결과는 9월 7일 발표된다.

/충남사회서비스원 041-330-2444

지역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공모 선정 국비 4억 확보

충남도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주관 ‘2022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오는 2024년까지 국비 4억 원(최대 9억 2000만 원)을 확보했다.

도는 공모 운영기관인 충남문화재단을 통해 1년 차인 올해 지역 특성

에 맞는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방향을 설계하는 등 사업 준비에 초점을 맞춘다.

공주문화재단과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해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컨소시엄위원회 운영 ▲장애인 문화예술 실태조사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개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화정책과 041-635-3818

그림그리기를 좋아하는 어린 이응노

고암 이응노 화백의 삶과 예술여정

고암 이응노 화백은 1904년 음력 1월 태어났다. 국가의 존망이 풍전등화와 같은 대한제국시기, 일본이 러일전쟁을 일으키고, ‘한일의정서’를 강제 체결하고, ‘한일협약’에 의해 일본의 고문정치가 시작되며 자주적 개혁을 꿈꾸었던 대한제국과 국민의 열망이 좌절했던 때이다.

이응노가 민족정기와 전통문화예술을 근간으로 자신만의 예술정신을 확립해야 함을 강조하며 실천하였던 의지도 이러한 암울한 시대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대한제국의 강제병합 이후 일제의 식민지교육의 일환으로 ‘보통학교’ 제도가 운영되었고, 교과목에 ‘도화(미술)’ 수업이 있었다.

어린 이응노는 보통학교 수업 중이 도화수업을 가장 좋아했는데 불행하게도 부친의 식민화 교육에 대한 반대와 가정 형편의 어려움으로 인해 보통학교를 그만두어야 했다. 다른 친구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 이응노는 부친께 한문과 서사(書寫)를 읽혔고, 집안일을 도와야 했다.

그러면서도 몰래몰래 혼자 그림그리기를 멈추지 않았다. 67세가 되던 해(1971년) 프랑스 파리 파케티 갤

러리에서 개최된 고암 이응노의 개인전 서문에 실린 글에서 그가 얼마나 그림그리기를 좋아했는가를 알 수 있는 어린시절에 대한 그의 고백이 있다.

“나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지만 그런 나를 도와 주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오히려 나를 방해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말했지만, 나는 남몰래 가벼운 마음으로 줄곧 그리고 또 그렸다. 땅 위에, 담벼락에, 눈 위에, 검게 그을린 내 살갓에... 손가락으로, 나뭇가지로 혹은 조약돌로... 그러면 나는 외로움을 잊었다.”

/황찬연 이응노의집 학예연구사



고암 이응노 작 어머니 (1943년, 종이에 채색, 26.5x36.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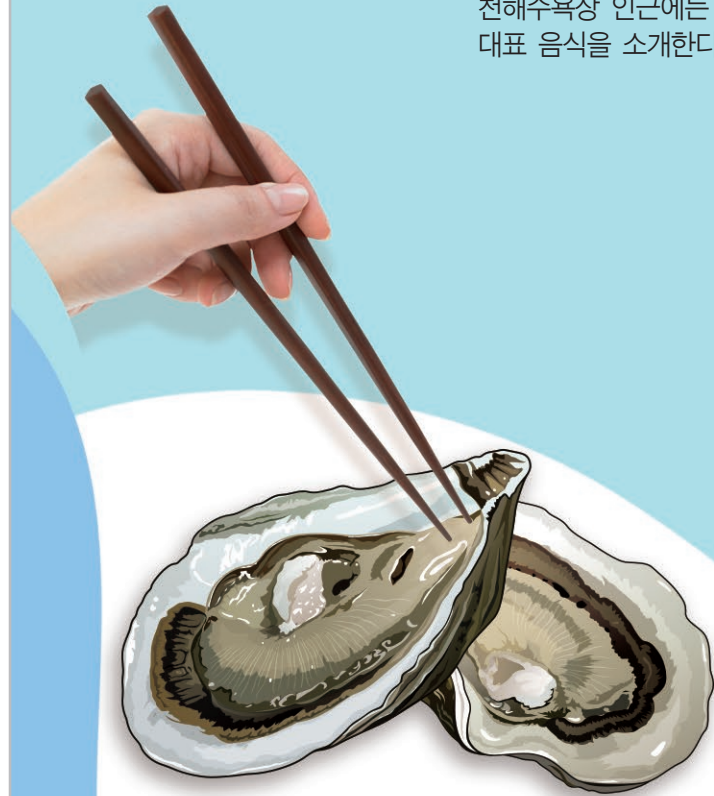
작품설명 : 고암 이응노의 한국과 일본에서 활동하던 1943년 작품으로 고향집을 배경으로 한 어머니의 초상화 작품이다. 그의 뛰어난 사실적 표현능력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인자한 표정과 다소곳이 두 손을 모으고 앉아 계신 어머니의 모습에서 이응노가 늘 그리워했던 어머니의 포근하고 너른 품이 따뜻하게 묻어난다.

머드박람회 가면 뭐 먹지?

보령가서 꼭 먹어야 할 음식 #보령해양머드박람회 #먹으러와보령 #보령9미

보령해양머드박람회가 열리는 보령시는 4계절 가리지 않고 다양한 수산물이 풍부하다. 국내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대 천해수욕장 인근에는 다양한 해산물 맛집들이 준비해 관광객과 미식가들을 유혹한다. 보령시가 선정한 보령의 9가지 대표 음식을 소개한다.

/김혜동 khdl226@korea.kr



1미 천북 굴 구이

독특한 향과 담백한 맛

천북지역에서 많이 나는 천북 굴은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기 때문에 성장은 느리지만 맛과 영양면에서는 탁월하다. 겨울철 숯불에 구워 먹는 맛은 매서운 추위를 녹인다.

위치: 천북면 장은리

천북면사무소: 041-930-0804, 천북굴축제추진위원회: 010-6711-8007



2미 사현포도

전국 최고의 높은 당도의 맛

남포면 사현리는 포도재배에 적합한 토양으로 전국 최고의 높은 당도로 맛과 향기가 뛰어나 소비자들 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농약사용 횟수를 줄이고 높은 재배기술로 20일 정도 일찍 수확하는게 특징. 사현포도연구회 영농조합법인에서 포도수확체험, 와인만들기 체험도 진행한다.

위치: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사현1길8-46

사현포도연구회영농조합법인: 041-931-0620



3미 주꾸미

쫄깃쫄깃하게 씹히는 맛

주꾸미는 불포화 지방산과 DHA를 함유하고 있어 시력회복 및 근육의 피로 회복등에 좋은 타우린이 다량 함유된 건강음식이다.

초고추장에 찍어 한입에 넣으면 쫄깃쫄깃하게 씹히는 맛이 좋으며, 주꾸미를 재료로 볶음, 회, 무침 전골 등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다.

위치: 무창포항 · 해수욕장

무창포어촌계, 무창포관광협의회: 041-936-3510

무창포관광협의회: 041-936-3561



4미 간재미 무침

쫄깃쫄깃하고 새콤달콤한 맛

서해안 앞바다에서 갓잡아 올린 싱싱한 간재미에 오이, 깨 등 갖은 양념을 하면 쫄깃쫄깃하고 새콤달콤한 맛을 느낄 수 있어 전국에서 많은 미식가들이 찾고 있다.



5미 꽃게탕

크고 담백한 맛이 일품

게는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많아서 소화도 잘되고 담백하다.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어 성장기 어린이, 허약 체질이나 노약자에게 좋으며 꽃게탕과 함께 게장, 찜 등도 맛볼 수 있다.

보령어항 직판장에서 봄, 가을 제철을 맞은 꽃게를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다.

위치: 대천어항 수산물센터

보령시 대천항로 374-2



6미 보령산 들김

바삭바삭하고 고소한 맛과 향

서해안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최상급의 원료로 만 만들어 몸에 좋은 영양분은 물론 오렌지간 바삭바삭하고 고소한 맛과 향이 유지 된다.



7미 키조개 요리

풍부한 단백질과 저칼로리의 색다른 맛

다량의 단백질이 풍부하고 저칼로리 식품으로 필수 아미노산과 철분의 함량이 많아 빈혈, 동맥경화 예방 및 임산부의 산후조리나 피부미용에 좋다. 다른 요리로는 로스구이, 전골, 무침, 샤브샤브, 죽, 튀김의 맛을 볼 수 있다.

위치: 보령시 오천항



8미 조개구이

신선한 해산물을 그릴에 직접 구워 먹는

가리비, 키조개, 소라, 새우, 꼬막, 전복 등 보령에서 나는 신선한 조개와 각종 해산물을 그릴에 직접 구워 먹는 체험형 메뉴로 신선한 해산물을 다양하게 맛볼 수 있다.

대천해수욕장 해변에 수십여개의 조개구이집이 성업 중인데 입맛에 따라 찾아가는 재미가 있다.



9미 해물칼국수

바다향과 쫄깃한 면의 만남

다양한 해산물로 바다향을 더하고 쫄깃한 면발로 먹는 재미까지 더한다. 시원한 국물과 깔끔한 맛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건강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보령의 대표적인 여름 휴양지 성주산 자연휴양림 계곡에서 관광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바다 위를 시원하게 가로지르는 쥘트랙. 짜릿한 스릴을 만끽하기에 더 없이 좋다.

휴양림 계곡에 스릴만점 쥘트랙...피서와 재미 동시에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보령해양머드엑스포 연계 관광
바다와 숲 어우러진 여행 명소

풍경·액티비티 등 체험요소 풍성
감성 사진 스샷 곳곳에 즐비

충남 보령의 계절, 여름이 왔다. 대표적인 해안 관광지인 보령은 평소에도 대천해수욕장, 냉포욕장, 천북굴구이 등으로 방문객이 많다. 올해는 특히 보령해양머드박람회로 예년에 비해 더 많은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바다와 숲에서 시원한 여름나기를 보낼 수 있는 보령 명소를 소개한다. 스탬프투어 코스를 따라 여행하며 인생사진을 남겨보자. <편집자 주>

바다 가로지르는 '쥘트랙'

대천해수욕장 해변 서쪽 끝 자락에는 52m의 쥘트랙 타워가 우뚝 서 있어 대천해수욕장의 랜드마크가 됐다.

타워높이 52m, 탑승거리 613m의 대천 쥘트랙은 4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레포츠 시설이다. 와이어 한 가닥으로 몸을 맡겨야 하는 쥘트랙은 첫 번째 비행은 무서움과 설레임, 두 번째 비행은 즐거움과 여유있는 스릴을 느낄 수 있는 짜릿한 익스트림레포츠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

출발대에 오르면 오싹한 두려움이 있으나 줄 하나에 온몸을 맡긴 채 시원한 바다 위를 활강하다 보면 한마리 새가 된 느낌이다.

52m의 타워 전망대도 큰 인기다. 20층 높이의 전망대에서는 대천해수욕장의 아름다운 전경을 내려다 볼 수 있으며, 수평선에 자리한 외연도를 비롯해 녹도, 호도, 원산도 등 보령의 크고 작은 수많은 섬과 여유롭게 오가는 어선들이 한데 어우러져 한폭의 풍경화를 연상케 한다.

대천 쥘트랙에서 바라보는 석양은 장관이다.

서해바다로 지는 저녁노을은 하늘과 바다, 섬 모두를 황금빛으로 물들여 한 번 보면 영원히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한다. 전망대에는 유리바다를 통해서 내려다 보는 바다도 아찔한 감흥을 느낄 수 있다.

- 쥘트랙 041-934-3003
- 스카이라이프 041-931-1180
- 패러글라이딩 010-5433-7545

나라사랑 '무궁화수목원'

충남 보령시 성주면 성주산 자락에 조성된 무궁화수목원에 나라꽃 무궁화가 활짝 피어 눈길을 끌고 있다.

보령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에 개원한 보령무궁화수목원은 총 면적 24ha에 교목류, 관목류, 초본류 등 1000여 종의 다양한 식물자원으로 조성됐으며 이곳에는 무궁화 6000여 그루가 만개해 장관을 이루고 있다.

무궁화는 보통 7~10월에 개화하며, 새벽에 꽃이 피기 시작해 오후에 옅어지고 해질 무렵에는 꽃이 떨어지기를 반복하는 꽃으로 다양한 품종을 가지고 있다.

수목원에는 홍단심계 품종으로 삼천리·광명·새아침·칠보, 백단심계 품종으로 한마음·선덕·해오름 등 150여 종의 다양한 무궁화가 식재돼 있다.

또한 올해 3월에 개관한 목재문화체험관에서는 나무를 이용한 문패, 독서대, 원목스тол 제작 등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도 가능해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밖에도 수목원에는 총 길이 174m에 평균 높이 10m에 이르는 '성주산 숲 하늘길'과 피톤치드 속에서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편백나무 숲, 생태연못, 무궁화테마공원, 전시온실 등 다양한 시설이 조성돼 있다.

하절기(3월~10월) 수목원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입장료 및 주차료는 무료이며 휴원일은 매주 월요일과 지정 공휴일(1월 1일, 설날, 추석)이다.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궁화수목원(041-931-6092)으로 문의하면 된다.

- 무궁화수목원 041-931-6092
- 보령시 성주면 성주산로 318-57

시원한 '성주산자연휴양림'

보령시 동쪽 성주면 일대에 위치한 성주산 자연휴양림은 산림청에서 폐광지역을 개발하여 휴양림으로 조성한 곳이다.

예전에는 휴양림을 포함한 성주면 일대가 광산지역이었다고 하는데 산림청에서 성주산(680m)내 약 500ha에 이르는 지역을 개발, 지난 1991년 5월 15일에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한 것이다.

1995년 5월에는 휴양림에서 도보로 약 15분 정도 떨어진 성주면 개화리에 석탄박물관이 개관되기도 했다.

성주산 휴양림은 화장골과 심연동 계곡, 크게 두 지역으로 나누어지는데 양쪽 모두 관리사무소, 주차장, 야영장이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숲속의집(통나무집)과 물놀이장, 체력단련장, 어린이 놀이터 등 주요시설들은 화장골 지역에만 마련되어 있다. 그래서 보통, 휴양림은 화장골쪽으로 접근하게 되는데 대전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15분 정도 지나 성주삼거리에서 하차한 후 15분 정도 걸어가면 휴양림 입구에 다다른다. 화장골에서 심연동계곡까지는 걸어서 약 3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산책코스를 따라 휴양림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여유있게 산림욕을 즐겨도 좋고 등산을 좋아하

는 여행객이라면 전망대에 올라보는 것도 괜찮다. 성주산 정상(680m) 아래 해발 580m 지점에 위치한 전망대에 오르면 성주면 일대와 부여군 외산면 일대가 내려다 보이는데, 왕복 약 2~3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주변에 둘러볼만한 곳으로 성주사지, 석탄박물관은 휴양림에서 도보로 15분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있고, 대천해수욕장이나 무창포해수욕장은 승용차로 20~30분 거리에 있어 산과 바다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야영장이 위치하고 있는 성주산 자연휴양림은 차령산맥이 빚어낸 아름다움을 뽐내는 곳으로, 화장골 계곡은 4km에 이르는 울창한 숲이 장관인 계곡으로 산림욕을 즐길 수 있다.

화장골 계곡은 청정지역으로 충남 명수(名水) 11개소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등산로와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숲속의 집, 물놀이장, 체력단련장, 어린이놀이터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 성주산자연휴양림 041-934-7133

볼거리 풍부한 '개화예술공원'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에 위치한 개화예술공원은 모산조형미술관, 야외조각공원, 개화허브랜드, 허브식당, 허브황토잡숯가마, 개화체험학습장 등 다양한 볼거리와 휴식공간이 함께하고 있다.

실내외 전시장에는 유명 작가의 작품이 전시



개화예술공원 내 카페 리리스 내부.



성주산 휴양림에 조성된 '숲 하늘길'



보령스탬프 투어.

돼 있으며 매년 외국 작가들의 전시회와 국제조각심포지엄도 열리고 있다.

공원으로 들어서서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은 붉은 지붕을 가진 모산조형미술관이다. 이곳에서 작가들의 전시가 열리고, 아이들의 체험 학습이 이루어진다. 체험장도 작가들의 전시장이다.

이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으로는 나무목공교실과 허브비누 만들기, 도자 만들기 등이 있다. 주말에 찾아가면 예약 없이도 체험할 수 있지만 재료를 준비해놓아야 하니 사전 예약 후 찾아가는 것이 좋다.

미술관을 돌아보고 체험을 마쳤다면 천천히 공원을 산책해보자. 미술관 앞에 자리한 야외조각공원과 연못을 따라 걷는 것이 기본 코스다.

조각공원은 1만여평의 전시공간이 마련돼 있으며 국제 조각 심포지엄을 통해 1000여점의 우수한 조각품이 다채롭게 상설 전시돼 가벼운 산책을 하면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꿈과 낭만이 있는 곳이다.

공원 내에 있는 4개의 연못을 따라 야생화와 조각을 감상하는 것도 좋겠으나 아이들과 함께 걷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 저마다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연못을 따라 산책하는 데만 2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미술관 앞 조각공원과 연못을 따라 걸어가면 커다란 비닐하우스가 보인다. 그곳은 개화예술공원의 또 다른 전시 공간인 허브랜드다.

다양한 허브들이 꽃을 피우고 그 아래 만들어진 수로를 따라 여러 종류의 물고기가 오가고 있어 아이들의 발걸음을 붙잡는 곳이다. 이곳에도 예술작품을 만나는 공간이 있으며 허브 상품을 판매하는 허브 상점이다.

허브정원을 돌아보고 나면 허브찜질방과 숯가마가 있는 곳으로 이어진다. 숯가마 앞쪽에는 인공폭포와 물놀이장이 있어 아이들의 더위를 식혀주는 장소로도 손색없다.

- 개화예술공원 041-931-6789

/김혜동 khdf1226@korea.kr

이순신 빙상장 피서장소로 ‘인기’

여름방학 아이들과 가볼 만한 곳
충남 최초 국제 규격 빙상장
국제대회 치른 동계스포츠 명소

방학 기간 어린이·청소년 대상
빙상 종목 체험 프로그램 운영

[아산]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아산시 이순신빙상장이 시민들과 아이들의 여름 힐링 장소로 떠오르고 있다.

연일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순신빙상장에 들어서면 완전히 다른 계절을 느낄 수 있다.

넓은 관람석(496석)과 스네카 등의 편의시설을 구비하고 있어 더위를 피해 여가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직접 빙판을 가르며 달려도, 스케이트 날에 부서지는 얼음 가루를 지켜만 봐도 폭염에 지친 마음을 잊을 수 있다.

충남은 동계스포츠의 불모지라 불릴 만큼 동계스포츠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충남 지역 최초의 빙상장이자, 국제 규격 아이스링크 시설을 갖춘 이순신빙상장의 존재는 더 보석 같다.

제9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2017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선발전, 2016년 교보생명컵꿈나무체육대회와 러시아 국립 볼쇼이아이스쇼 공연 등 이미 치러낸 국제대회와 공연도 여럿이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뒤로 주



이순신 빙상장을 찾은 청소년들이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말이면 가족 단위 방문객이 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매월 2000명 이상, 주말에는 평균 800명이 방문했는데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곧 이전 규모를 웃도는 인원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산시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편리하게 빙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상태와 안전을 점검하는 한편, 시민들이 빙상 종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건강스포츠교실, 장애인 빙상교실, 관내 학교 체험학습, 꿈나무교실, 지역 소외계층 어린이 강습 외에도 방학 기간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쇼트트랙과 피겨스케이팅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빙상 꿈나무 육성에도 심혈을 기울인

다는 계획이다.

임이택 아산시 체육진흥과장은 “개관 10주년을 맞이한 이순신빙상장체육관이 충남의 랜드마크 스포츠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과 사업체 연계 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 역량 강화 교육 실시로 빙상장을 방문한 시민들이 큰 만족감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순신빙상장체육관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매주 월요일과 법정 공휴일은 휴관한다.

/아산시 제공

밤에 아프면 심야약국 가세요

홍성군, 7월부터 운영
밤 10시~새벽 1시까지

[홍성] 365일 문 여는 공공심야약국이 충남도 내 최초로 홍성군에서 7월부터 운영된다.

공공심야약국 사업은 대한약사회 주최로 정부 지원을 통해 시범운영에 들어갔으며, 충남도 군 단위에서는 유일하게 홍성군의 소재 ‘보령약국’이 선정됐다.

보령약국은 홍성의료원 인근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난 7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해 심야시간대인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3시간 동안 운영한다.

군은 심야시간대 운영이라는 특성상 우범 사각지대에 놓일 것을 우려, 홍성경찰서와 협업하여 시범 운영기간 동안 탄력순찰을 지원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심야시간 소아 해열제나 알레르기약처럼 고객에게 당장 필요한 약을 찾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번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홍성군 제공

공주시, 미래유산 14건 선정

백제문화제·산성시장·도예촌 등

[공주] 공주시는 충남 최초로 미래유산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백제문화제와 산성시장 등 14건을 미래유산으로 선정했다.

시에 따르면, 공주의 근현대를 배경으로 다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어, 미래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는 유무형 유산을 ‘공주시 미래유산’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미래유산은 백제문화제와 공주 산성시장, 금학동 수원지, 계룡산 도예촌, 공주교육대학교 은행나무와 사제동행상, 황금직물, 공주 하숙마을 등이다.

또한,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세리파크, 공주보훈공원, 정안암, 금강 자연미술 비엔날레, 금강의 향가, 백제미마지탈춤 등 총 14건이다.

공주 산성시장은 일제강점기 이후 공주시민이 여가를 즐기던 최대 상업 밀집 지역으로 공주의 도시사적 경관 형성에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금학동 수원지는 1923년 충남 최초로 수도물이 공급된 공주의 근대성을 상징하는 공간이며, 공주교육대학교 은행나무와 사제동행상은 공주교육대학교의 역사와 전통뿐만 아니라 교육도시 공주의 장소성을 상징한다.

황금직물은 우리나라 산업화시기



공주시 미래유산으로 선정된 금학생태공원.

유구의 섬유산업을 대표하며, 공주하숙마을은 1960년대 원도심 지역의 도시정체성을 나타낸다.

시는 공주시 미래유산 선정을 위해 충청남도 최초로 지난해 11월 ‘공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시민 및 전문가들이 추천한 미래유산을 대상으로 지난달 공주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최원철 시장은 “공주시 미래유산 선정은 시민의 기억과 감성을 담은 미래유산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보호하고 전승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공주시 미래유산이 공주의 역사문화자원의 기반을 확장하고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주시 제공

대한민국 축구 유망주, 천안에 총집합

K리그 유스챔피언십 유치

[천안] 대한민국 축구 유망주들의 각축전이 될 2022 K리그 유스 챔피언십이 7~8월에 걸쳐 천안에서 진행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넥슨과 천안시, 천안시 축구협회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U17~U18 선수들의 경기는 이달 16일부터 28일까지, U14~U15 선수들의 경기는 다음달 11일부터 23일까지 천안

축구센터와 북부스포츠센터, 천안생활체육공원 축구장 등지에서 개최된다.

현재 K리그1과 K리그2에서 활약하는 팀들의 유소년 선수들이 출전해 자웅을 겨루게 될 이번 대회는 그간 경북 포항시 일원에서 오랫동안 열렸지만 지난해부터 천안시와 천안시축구협회 등이 한국프로축구연맹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며 천안으로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특히 내년 시즌에는 천안시축구단이

프로축구 K리그 참가가 유력한 상황 이어서 본격 프로 출범을 앞두고 지역에 축구열기를 한껏 불어넣을 수 있는 대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기호 천안시축구협회장은 “미래의 프로축구선수로 성장할 유망주들이 펼치는 경기가 벌써부터 기대된다”면서 “천안에서 대회를 치르는 동안 선수단 및 학부모 등이 불편함을 갖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천안신문

www.expo22.kr

GYERYONG WORLD MILITARY CULTURE EXPO 2022

2022

계룡

세계軍문화엑스포

2022. 10. 07 - 10. 23

충청남도 계룡시(계룡대 활주로 일원)

K-Military, 평화와 카네

주최

주관

expo22.kr

가장 ‘충남다운 것’이 최고다

내포칼럼



서창수
순천대학교 교수

호미·갯·고무신 ‘아마존’서 유행
한국 고유의 이미지 세계인 유흥

충남 문화·소프트 파워 발굴 필요
모방 지양하고 독창적 콘텐츠 추구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술은 무슨 술일까? 위스키나 와인, 코냑, 보드카, 빼갈이 아니라 소주다. 그것도 지난 10년간 세계 1위다. 1년에 무려 24억여 병이 팔린다. 60% 이상이 해외로 나간다. 외국인들이 우리 보다 더 퍼 마신다. 미국, 일본, 중국 등은 물론이고 동남아 유럽 등 80여개 국가로 수출되는데, 최근 증가율이 급등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으로 유학 온 외국학생들이 오자 말자 소주 집으로 달려갈 정도로 인기다. 해외에서는 과일을 넣은 과일 소주가 인기다. 특히 일본 청년들은 과일소주 에 라면 사다 놓고 한국 여행온 것 같이 사진 찍어 올리는게 유행이다.

세계 최대 쇼핑물 아마존에 가면 ‘호미’가 있다. 아마 한국에서도 호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옛날 농촌에서 밭에서 김을 팔 때 쓰던 작은 농기구다. 한국 시골에서 쓰던 보잘 것 없던 농기구가 외국인들 에게 인기란다. 집 정원 가꾸기에 아주 편리한 도구로 알려지면서, 한국 대장간에서 만든 호미가 최고의 프리미엄 인기다. 아마존에는 옛날 어른들이 머리에 쓰시던 ‘갯’도 있다. 우리 역사드라마가 외국인 사이에서 유행하면서 한국의 갯이 많이 팔린다. 모양이나 편리함 등에서 누가 갯을 쓸까 의아해하지만, 외국인들은 한국 문화 아이템으로 갯을 찾는다. 더구나 최근에는 우리에게는 빈곤과 어려움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고무신’이 한국 젊은이들과 일부 외국인들 사이에서 새로운 패션 아이템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검정색이나 흰색 위주에서 벗어나 다양한 색상의 고무신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신발 패션의 하나가 되고 있다고 한다.

소주나 호미, 갯이나 고무신 모두 과거에는 별로 유행이나 인기와는 관계가 없던 것들이었다. 오히려 농촌,

가난, 술꾼과 같은 좋지 않은 이미지로 기억되는 것들이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어떤 계기에 새로운 추억으로 소환되어 과거의 이미지를 깨고 새로운 유행의 주인공이 되었다. 화려한 부활의 주요 계기는 그것이 우리 고유의 한국적인 것이라는 것 때문이다. 다른 나라에도 있는 흔한 것이라면 이미지가 그렇게 선명하게 부각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순수 우리 것이다.

과거에는 한국 것이라고 하면 가치나 이미지가 디스카운트 되었는데 지금은 한국 것이라고 하면 프리미엄이 붙는 형국이다. 요사이 한국은 다방면에서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다. 우선 경제적으로 기적을 이룬 나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언제부턴가 정치적 민주화에서도 또 다른 기적을 이룬 나라라고 칭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문화적인 힘, 소프트 파워에서 또 하나의 기적을 이루었다고 오두방정이다. 음악과 춤, 영화와 드라마, 패션과 뷰티, 음식과 술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것이 인기 짱이다. 다른 나라는 한 가지의 기적도 어려운데.... 서방 선진국이 100년 이상이 걸려서 이룬 성과를 단 20-30년 만에 이루었다.

비결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것이다. 과거 묻어두고 싶던 유물들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가치로 부활하였다. 우리만의 부지런함으로, 우리만의 투쟁 방식으로, 우리만의 신바람과 소리침으로 세계적인 것이 되었다.

우리 충남은 무엇으로 세계적이 될 수 있을까? 간단하다. 가장 충남적인 것, 가장 잘 하는 것, 다른 곳에서 안 하는 것에서 시작하자. 다른 곳으로 부터의 모방과 벤치마킹은 또 다른 모방을 낳고 결국 다 같아지는 길이다. 공멸의 가장 흔한 패턴이다. 그야말로 “디퍼런트(Different)”이다.

빗길 안전운전 필수

생생현장리포트



김동근
무한정보 기자

예산지역에 7월 들어 13일 가운데 절반이 넘는 8일 동안 비가 내렸다.

강수량(평균 27mm)의 경우 적은 날은 0.08mm, 많은 날은 14.50mm를 기록했으며, 12개 읍면은 신암면(55mm)이 최고, 덕산면(20mm)이 최저다. 전국에서 가장 큰 예당저수지(유효저수량 4607만200㎥)는 일부 바닥을 드러내며 저수율이 20%대까지 떨어졌다가 50.1%(2308만1200㎥)까지 차올랐다.

군내 12개 저수지 총저수율은 52.1%, 총저수량은 3101만7600㎥다.

장마가 이어지면서 6월까지 이어지던 지독한 가뭄은 해갈됐지만, 본격적인 여름휴가철까지 맞물려 치사율이 매우 높은 ‘빗길 교통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안전운전을 위해선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와 감속이 필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비 오는 날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는 2.2명으로, 맑은 날 1.6명과 견줘 0.6명(37.5%) 높다.

빗길은 타이어-노면 마찰력이 감소해 제동거리가 늘어난다. 속도가 빠를수록, 타이어 마모도가 높을수록 제동거리는 더 길어진다(승용차 기준 최대 1.8배). 이를 예방하려면

차량간 안전거리를 평소보다 넓게 유지하고, 최고속도의 20%(폭우 등 가시거리 100미터 이내는 50% 이상) 이상 감속운행해야 한다.

보행자도 마찬가지다. 외출할 때 밝은 색 옷 착용,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자제, 도로횡단시 차량유무 확인 등 교통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다.

장거리 피서여행을 갈 때는 에어컨·냉각수·브레이크오일·타이어 등 꼼꼼한 차량점검이 필수다. 엔진의 열을 식히는 냉각수는 기준량보다 부족하거나 순환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오버히트(엔진과 열)’ 증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는 자동차엔진에 심각한 고장을 일으킬 수 있어 출발 전 냉각수 양을 확인해야 한다.

타이어는 도로와의 사이에 물이 빠지지 않으면 수막현상이 발생해 제동할 때 미끄러질 수 있어 마모깊이는 1.6m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 지면과의 마찰 등 열의 영향을 많이 받아 마모와 찌그러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주행 2시간마다 10분씩 휴식,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공기압 10% 정도 상향 등이 도움이 된다.

태풍이나 폭우를 대비해 앞 유리창을 닦아주는 와이퍼가 낡았다면 시야확보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즉시 교체하고, 전조등과 비상등등 등화장치도 점검해야 한다. 긴 내리막은 기어를 저단(엔진브레이크)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개미도 노래를 부른다

소중애 문학관의 책들(2)



소중애 동화작가

단편 모음집인 ‘개미도 노래를 부른다’에서 표제 작품을 간단하게 소개한다.

1960~70년대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이 최우선 과제였다.

1970년 11월부터 초등학교에서 근무했던 나는 이상한 홍보물을 받았다. 만화로 되어있는 ‘놀부전’이었다. ‘놀부전’에서는 흥부가 애 많이 넣고 매 맞고 돈 벌 궁리나 하는, 세상 게으르고 무능한 몸쓸 사람으로 나왔다. 거기에 놀부는 지독한 구두쇠로 부모님 제사상에 제사음식을 쓴 종이를 놓고 제사 지냈다고 칭찬하였다. 아이들에게 놀부의 절약 정신을 가르치라는 홍보물이었다. 뭔가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홍보도 좋지만 고전을 이렇게 훼손해서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화예술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탄압의 대상이 되어 필화 사건도 많았을 때였다.

‘개미도 노래를 부른다’는 나의 작은 저항이었다.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이후에 개미 나라에서는 노래

가 법으로 금지 되었다. 노래를 부르면 배짱이처럼 굼어 죽게 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노래 금지법은 오랫동안 잘 지켜왔으며 노래가 무엇인지 모두들 잊게 되었다.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태어난 짜루는 가는 줄기만 남은 나뭇잎을 땡기자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노래를 만들어 부르게 되었다. 먹음직한 열매를 버리고 나뭇잎을 가져온 것이 기증 되어 짜루는 감옥에 갇혔다. 부지런하게 일하던 개미들은 짜루를 잊고 있었는데 심심한 겨울이 되자 짜루가 궁금해졌다. 간수는 짜루가 최근에 만들어 부른 노래를 흥내냈다. 개미들은 노래라는 것이 흥겹고 즐겁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짜루의 노래는 불 같이 성안에 퍼져 나갔다. 여왕개미는 일개미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라 생각하고 탄압하였다. 하지만 노래는 멈추지 않았다.

여왕개미는 노래를 부르는 것은 반란이 아니라 배부르고 행복해서 부르는 것이라는 짜루의 말을 듣고 깨달았다.

여왕개미는 선포 하였다. “열심히 일한 자는 노래를 불러도 좋다.”

그 자리에서 짜루는 ‘여왕님은 위대하셔라.’라는 노래를 만들어 불렀다. 세월이 흘러 여왕님도 짜루도 세상을 떠났지만 지금도 개미들은 일을 하면서, 혹은 쉬면서 노래를 부른다. 첫번 째 책이라서 이야기도 많고 정이 많이 가는 책이다.

마음속 행복을 찾다

내포문화숲길, 마음으로 걷다 원효깨달음길 4코스

우리가 숲길을 걷는 이유는 시원한 바람을 벗 삼아 나무들 사이로 들려오는 새소리를 들으며,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포문화숲길은 거기에 더하여 원효깨달음길에서 불교사상을, 내포 천주교 순례길에서 박해와 순교의 역사를, 백제부흥군길에서 백제 역사를, 내포 역사 인물길에서 독립운동을, 내포 동학길에서 동학정신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내포문화숲길은 다른 숲길들보다 더 재미있습니다.

오늘 걸어갈 길은 원효깨달음길 4코스입니다. 이 길을 선택한 이유는 백암사지와 관련된 이야기 때문입니다. 현재 백암사지는 축대와 석탑의 일부 부재만이 남아있습니다. 과거에 이 절은 대웅전과 석탑을 비롯한 많은 건물이 있었겠죠. 그 시절의 소리, 사찰 내 스님의 염불 소리, 만물을 깨우는 맑은 종소리, 두둥둥 울려 퍼지는 북소리가 들릴 듯합니다.

백암사지와 관련하여 전해오는 이



내포문화숲길의 한 구간인 원효깨달음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용현 계곡에는 99개의 암자가 있었는데, 계곡에 100개의 암자가 생기면 모든 암자가 불타 없어질 것이라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백암사를 지으면서 100개의 암자가 채워지자, 계곡의 모든 암자가 불타 없어졌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백암사를 지은 이유가 무엇이였을까요. 99개나 되는 암자들이 있는 불교성지에 예불 공간이 부족해서 백암사를 지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도 큰 사찰의 주지가 되고 싶었던 스님의 욕심이였을 것입니다. 욕심은 채

울수록 더 많이 채우려고 하여 끝이 없습니다. 99개의 암자로 채워져 이미 번성하던 용현 계곡에 100번째 암자를 지은 그 스님의 욕심이, 결국 계곡의 번영을 암자들과 함께 모두 불살라 버렸습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결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바로 마음 안에서 찾아지는 것입니다. 숲길을 걸으며 자신의 마음을 바라봅시다. 내포문화숲길은 역사와 함께 걸으며 마음을 바라보는 장소입니다.

/이경복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내포문화진흥센터장

오색 불빛 ‘백마강 테마파크’ 야경명소 부상

하늘자전거·수륙양용열차·전망대 등
체험시설·경관조명·공원 갖춰

[부여]부여군 ‘백마강테마파크’가 오는 8월 1일 정식 개장한다.

백마강테마파크는 2460㎡(123×20m) 규모로 전망대, 하늘자전거, 수변열차 등이 연계된 신개념 체험형 관광거점시설이다.

백제역사 너울옛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141억3000만원(국비 50%, 군비 50%)을 들여 군수리 금강하천부지에 조성했다.

백마강테마파크를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만들어나간다는 게 군의 목표다. ‘백마강테마파크’ ‘백마강전망대’ ‘백마강하늘자전거’ ‘백마강정원열차’ 등의 명칭도 지난 5월 전국 공모를 통해 결정됐다. 지난달 전국 공개입찰을 통해 민간 운영사업자 선정도 마친 상태다.

관광거점시설인 백마강테마파크의 가로길이 123m는 해상왕국 사비백제 123년이 모티브가 됐다. 전망대 높이 31m에는 ‘역대 백제왕 31명’이라는 의미가 담겼다. 또 6개의 원형띠와 연꽃잎을 통해 ‘사비백제 6대왕’을, 8개 타워 기둥을 통해선 ‘사비백제 8충신’을 각각 기념했다. 하늘자전거가 다니는 모노레일을 지탱하는 기둥은 칠지도로 형상화했다.

백마강전망대는 웅장하고 생동감 있는 이미지를 연출하는 LED경관조명이 설치돼 부여의 랜



백마강 테마파크에 조성된 전망대의 화려한 조명.

드마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15인승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원형계단 250개를 만들어 오르는 재미를 더했다.

하늘자전거는 266m 길이의 모노레일 위를 자전거 페달을 굴러가며 체험하는 시설이다.

백마강정원열차는 하반기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는 대로 운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백마강의 수려한 사계절 자연환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코스를 구성하고 지역 대표 관광상품으로 키워나간다는 구상을 세웠다.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백마강 생태정

원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부여군이 오래전부터 마련해놓은 기존 체험형 관광상품과의 연계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백마강테마파크는 수륙양용버스, 카누체험 등과 시너지를 내며 관광객들에게 부여 관광의 색다른 묘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백마강테마파크 운영에 만전을 기해 역사문화관광자원과 차별화된 국내 유일의 체험형 관광자원을 구축하고 관광도시로서 재도약하는 데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부여군 제공

충청인의 詩香

칠월이 오면

칠월이 오면
메마른 바람에 매달린 칠월이 오면
본색을 드러내는 하늘을 보며
근원의 여행을 꿈꾼다.

자유와 갈구와 평온의 시간은
꿈꾸듯 혼곤하게 나를 감싸고
한계의 틀은, 불시에 조금씩 균열을 일으켜
격동을 일으킨다.

얼핏 스쳐 지났던 지중해의 푸른 바다
혹은, 페테르부르크의 여름궁전 그 언저리쯤
해거름에 누워 즐기도 한다.

그곳에는 분명 올바른 정오가 있어
生の 시계를 멈추게 할 것이다.
다시 시작하는 생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라
그 첫 발자국,
정교한 자세로 가득 찰 것이다.



이정우 시인

·시와시론 신인상, 충남문학상
·천안문화관장
·산문집 『길 잃는 즐거움』 외 다수

갯벌서 조선 용머리 장식기와 발굴

2019년 이어 취두·검파 추가 확인

고선박 확인 수중 탐사 계획

[태안]태안군 남면에 위치한 청포대 갯벌 일대를 조사하고 있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올해 5월 용머리 장식기와 상단과 지난해 6월 출토된 검파를 새롭게 발굴해 지난달 29일 서울시 종로구 소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언론에 첫 공개했다.

이번에 발굴한 장식기와 상단과 검파는 지난 2019년에 조개를 캐던 주민이 발견해 신고한 장식기와 하단과 결합되는 유물이며, 지난해 6월 연구소가 인근 지역에서 추가로 발굴해 낸 장식기와 유물(상하단)과 쌍을 이루는 것이 확인됐다.

검파 발굴로 인해 건물 용마루에 올라가는 취두 전체가 온전한 모습 그대로 출토됨에 따라 조선 전기 용머리 장식기와의 완전한 형태를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조선시대 왕실 관련 마루장식기와연구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자료를 확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특히 경복궁 창건기 건물 및 송례문, 양주 회암사지 등 조선 전기 왕실 관련 건축물의 세부 모습에 대한 실질적인 고증이 가능한 유일한 고



용마루에 올라가는 취두.

고자료로도 평가된다.

이번 5월에 발굴된 검파는 길이 40.5cm, 폭 16cm, 두께 7cm 크기의 칼 손잡이 모양으로, 앞뒷면에 2단으로 구름무늬가 표현되어 있고, 취두 상단의 방형 구멍과 결합되도록 짧은 자루도 갖추고 있다.

검파는 빗물이 취두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실용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취두에 표현된 용이 지붕을 물고 있어 더 이상 용마루를 감아먹지 말라는 의미도 있다고 전해진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관계자는 “8월 중순까지 해당 지역에 대한 추가 발굴조사와 수중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안신문

공주고 개교 100주년 기념 특별전

20일까지 민갤러리, 동문 작품 50여점

[공주]2022 공주고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 1930~2000년대 17기 현광국부터 73기 이동욱까지 미술인 특별전이 7월 20일까지 공주시 웅진로 154-4 제일화방 2층 민갤러리에서 열린다.

이 전시회에는 17기 현광국 동문부터 73기 이동욱 동문에 이르기까지 공주고를 졸업한 동문의 작품 50여 점이 전시, 대한민국 미술계의 거장들을 배출한 공주고 미술인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부영이 작가 손현미, 디아트엘 초대전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개최

[서산]부영이 작가 손현미 초대전이 오는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예당호수 디아트엘(관장 이영옥)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부영이를 통해 사람들의 감성을 깨우고 더불어 행복의 메시지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끝없는 상상의 나라를 펼치게 한다.

전종현 공주고등학교장(55회)은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여 전시되는 이번 미술 작품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 있고, 가치가 높다”라며 “그림 속에는 모교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밝은 미래의 모습을 담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의 배움이 사회에 도움이 되게 하라”는 공주고 정신을 몸소 실천해 사회와 국가 그리고 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어 다시 100년 후에는 지금의 그림보다 더 멋진 그림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특급뉴스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부영이를 통해 사람들의 감성을 깨우고 더불어 행복의 메시지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끝없는 상상의 나라를 펼치게 한다.

특히 빨간 우산속에서 함께 차를 마시는 작품 ‘꽃비’와 편안한 모습의 하루를 그려낸 ‘가을날 오후’는 연인들의 행복한 일상을, 엄마 부영이를 기다리는 모습을 그린 ‘부영이가족’은 현대 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서산시대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알기 쉬운 성인지 칼럼

“성인지 예산은 별도의 예산인가요?”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흔히 하는 오해이다. ‘지방재정법’은 성인지 예산서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라고 정의하고 있다.

성인지 예산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의외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첨부하는 성인지 관점에서의 예산 분석서이다. 충청남도는 2022회계연도 예산을 수립할 때, 여성·복지·자치행정·농림축산·건설·교통 등 분야 112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했고, 작성 사업 예산

액의 합계가 1247억원이다. 전체 세출예산액의 5.3%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전국 광역시도 평균 5.6%보다는 낮은 수준이다(지방재정통합공게시스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정부 예산을 성평등한 방식으로 운용하기 위함이다. 즉, 충청남도의 성평등 수준 향상이라는 지향점을 가지고, 정책 분야별로 성별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다.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을 예시로 살펴보자.

이 사업은 도내 청년농업인의 성별 구분없이 농업경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지원한다.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분석한 결과, 청년여성농

업인의 참여도(정책 수혜)가 낮게 나타났다.

도내 청년농업인 중 여성비율은 45.4%인데,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의 수혜를 받는 여성 비율은 6.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 때문이다. 성별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존재하는 농업·농촌 환경에서 비롯됐다.

청년여성농업인은 자녀양육·가사노동의 일차적인 책임자이고 농업경영에서는 보조적인 역할로 인식되고 있어, 농업전문교육은 배우자 남편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남편이 교육에 참여하는 동안 여성은 가사일과 남은 농사일을 수행한다. 이에 대한 고려나 개선노력이 없다면 사업 참여자의 성별 격차는 좁혀지기 어렵다.

정책사업 담당자는 청년농업인 공모사업 심

사평가시 여성농업인 가점제를 운영하고 4-H 여성회원 교육을 추진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고, 사업 결산시 청년여성농업인 참여비율은 11.4%로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정책사업의 예산이 성별로 형평성있게 배분되도록 개선한 정책사례이다.

성인지 예산은 충청남도 성평등 수준 향상이라는 거시적인 목표를 지향하면서 개별 정책사업 수준에서 공적인 방식으로 성평등한 변화를 꾀하는 행정제도이다.

앞으로 도민 체감도와 파급효과가 큰 보다 많은 사업들에 대해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면서 분석하고 성별 격차를 개선하는 실천들이 공적 영역에서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태희원 충남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성별영향평가센터장



당진에서는 매월 넷째 주 토요일 당진농업기술센터에서 ‘당장’이라는 이름으로 농산물 직판장이 열린다.

“귀농에 나이가 있나요?”…당진 농부장터 최고령 셀러의 도전

[당진]매월 넷째 주 토요일이면 농업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농부들이 모여 ‘당장’이라는 장을 연다. 해당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만이 판매자로 참가할 수 있는 장터이기에 당진전통 시장에 비해 대부분 젊은 농부들이 참여한다.

하지만, 얼굴에 새겨진 세월의 흔적으로 굳이 나이를 묻지 않아도 당장의 최고령 판매자임을 알아 챌 수 있는 셀러가 있었다. 바로 자운농장의 구자온(81) 농부다.

구자온 농부는 지금은 농부가 되어 매일매일 즐겁게 과일을 돌보며 농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 처음부터 농사를 지으려고 당진에 내려온 것은 아니었다. 인천에서 오랫동안 페인트사업을 하던 구자온 농부는 도시생활에 지쳐 귀촌을 결심했다.

사업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에 지치고 나이를 먹으면서 몸까지 아파오자 더 이상은 일보다 자신의 몸을 더욱 돌봐야할 때가 됐다고 느꼈다. 그래서 그동안 해오던 페인트 사업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2006년에 대호지면으로 내려왔다.

처음에는 시골에 가서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귀촌을 마음먹었지만

구자온 농부의 배움에 대한 열정은 멈출 수 없었다.

구자온 농부가 대호지면에 막 거주하기 시작할 무렵 빈 밭에 심었던 매실나무가 죽자, 그 자리에 복숭아나무를 심었다. 새로 심은 복숭아나무를 돌보기 위해 구자온 농부는 수많은 논문과 자료를 찾고 교육을 들으며 복숭아나무를 길러냈다.

복숭아나무는 농부의 열정을 먹고 무럭무럭 자란 결과, 복숭아나무에는 주문자가 너무 많아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맛을 보기 힘들다는 지금의 구자온 농부의 신비복숭아가 열렸다.

워낙에 배우고 연구하기를 좋아하는 구자온 농부는 새로운 도전도 서슴지 않았다. 특히 복지관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교육은 배우기를 좋아하는 농부에게 날개를 달아줬다.

구자온 농부는 “원래 저는 무언가를 배우고 교육받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복지관이나 어디에서든 영어교실, 노래교실 등 배울 기회가 있으면 다 참여했다”며 “그러다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농약교육, 친환경 교육 등을 받게 되었고 지금은 GAP인증까지 준비하고 있다. 취미생활 치고는 정말



**81세 자운농장 ‘구자온’ 농부
도시생활 지쳐 당진으로 정착
교육·연구로 ‘신비복숭아’ 재배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팬찮지 않나”라고 말하며 누구보다 생기 넘치는 눈빛을 보였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1년에 몇 번씩 각 마을을 돌며 고구마, 마늘 등의 작물재배교육을 실시한다. 그때마다 구자온 농부는 다양한 교육을 주변 사람

들과 함께 받고 싶지만 쉽지 않다. 마을에서는 그런 교육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면에 즐기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구자온 농부는 “농업기술센터나 복지관 등 지금은 오히려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이런 교육을 받아서 기회를 잘 활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라면서 “하지만 내 친구 중에도 교육을 잘 안 받는 친구가 있다. 나는 그 친구와 함께 교육을 받고 당장에 판매자로 참가도 하고 싶은 마음에 계속 권유하고 있지만 이런 활동들이 익숙지 않은 그 친구는 아직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다”

라며 아쉬워했다.

구자온 농부가 주변사람들에게 교육을 권유하는 이유가 있다. 교육을 받으면서 새로운 농법을 익히고 소비자를 직접 만나서 내가 만든 상품도 팔고 나면 확실히 농사의 질이 달라지는 것을 몸소 느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교육을 받기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도전해도 좋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했다.

구자온 농부는 “당장에서 우리 복숭아를 선보이기 위해 품질을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또 품종도 맛있는 걸로만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며 “또한 교육을 통해 농약 사용하는 법을 배워서 그대로 해보니까 확실히 좋다. 지금은 농약 주고 2주 정도가 지나면 나도 마음 놓고 먹을 수가 있으니 소비자에게도 더욱 자신 있게 권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만약 젊은 사람들이 이런 농장을 시작한다면 아마 도시에서 직장생활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을 것이다. 또한 나이가 있더라도 전혀 걱정하지 말고 도전하길 바란다”며 희망의 기운을 전했다.

/당진신문

이준수 감독, 유럽영화제 최우수 단편상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천안지부장
작품 ‘기억의 저편’ 5관왕 수상

[천안]이준수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천안지부장이 ‘2022 파라다이스 영화제’에 이어 ‘2022 Europe Film Festival’(유럽영화제)에서 단편영화 ‘기억의 저편’으로 최우수 단편영화상을 수상하며 5관왕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국예총 천안지회와 충남영화협회 후원으로 제작한 이 영화는 충남 지역 일대에서 촬영되었으며 50년 만에 만



이준수 지부장

난 순임과 주철의 눈물없이 볼 수 없는 로맨스 드라마 시대극이다.

아들의 도움으로 50년 만에 만난 주철과 순임이 서로 가슴 아파하고 옛

시절을 회상하며 그들의 아픈 사랑이야기가 공개된다. 그 시절,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세월의 풍파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가슴 아린 이야기로 어르신들에게 추억을 선사할 수 있는 영화이다.

이준수 지부장은 “50년 전의 이야기와 배우들의 열연이 빛을 발한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작년에 이어 좋은 성과를 얻은 것 같아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앞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영화인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천안신문

문해백일장 중등부 최우수 수상

내포성인학교 수강생들 쾌거

[홍성]문해교육 기관인 내포성인학교 수강생들이 전국대회에서 높은 성적을 올리고 있다.

내포성인학교에 따르면 지난 9일 한국문해교육협회가 주최하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국가평생교육원이 후원하는 제18회 성인문해학습자 백일장 공모에서 내포성인학교 수강생인 김광운 씨가 중학과정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진>

또 같은 중학과정을 수강 중인 정



유화 씨가 늘배움상을 수상했다.

내포성인학교는 중학학력 인정교육기관으로 현재 20명의 학생이 등록해 수강 중이다.

/김혜동 khdf1226@korea.kr



사서들의 서재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김하나, 황선우/위즈덤하우스, 2019>

혼자도 결혼도 아닌 ‘조립식 가족’의 탄생

1인 가구의 비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지만, 1인 가구 혼자서는 집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 ‘내년에는, 몇 년 후에는 돈을 모아 좋은 집을 사야지’ 다짐하지만 혼자 벌여 먹고사는 1인 가구에 내 집 마련이란 하늘의 별 따기나 마찬가지이다. 그렇다 보니 현실에 안정을 위해 보통의 사람들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선택하게 된다.

여기 세어하우스와는 또 다른, 새로

운 가족의 형태가 된 사람들이 있다. 이 책의 작가인 김하나, 황선우 작가. 두 사람은 완벽한 1인 가구였지만 4인 가구가 기준인 이 나라에서 살아가기엔 무엇인가 아쉬웠다. 김하나 작가에게 갖고 싶은 집이 있었지만 혼자서는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러다 황선우 작가를 설득해 결국 함께 대출받아 그 집을 구입하고 같이 살게 되었다. 그렇게 1인 가구는 2인 가구가 되어 한집에 살게 되었다.

여자 2명에 고양이 4마리. 사회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가족과는 조금 다른 형태이지만, 그들은 가족임에 틀림이 없다.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족이지 않을까.

부산 출신에 고양이를 키우고 글을 쓴다는 공통점 많은 둘이 만나 새로운 가족이 되어 살기 시작하면서 겪은 다양한 이야기들, 그러면서도 둘이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골치 아픈

문제들과 그 해결 방법 등 결혼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가 한집에 살게 되면 겪게 될 현실적인 문제들을 솔직하고 유쾌하게 적어냈다.

누군가는 꿈꾸고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인정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두 명은 완벽한 가정을 이루었다. 여자와 남자의 결합만이 가족의 기본이던 시대는 이제 가고 있다. 앞으로 무수히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할 것이며, 이 모든 형태의 가족은 각자의 삶을 살며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게 될 것이다.

/윤소윤 충남도서관 정보서비스과



“재정 분석·사업성 검토 철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충남도의회는 지난 5일 제33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사 예결특위) 위원장에 최창용 의원(당진3)을 선출했다.

이날 예결특위는 제1차 회의를 열고 19명의 위원 구성을 완료했으며, 부위원장으로 주진하 의원(예산2)을 선임했다.

이번에 구성된 예결특위는 내년 6월



최창용 위원장



주진하 부위원장

말까지 활동하며, 충청남도과 충청남도교육청의 예산·결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예결특위는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운영 일정과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날 위원들은 다가오는 2회 추경심사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정부 추경 사업과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가자고 입을 모았다.

최창용 위원장은 “집행부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충남도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강하고 균형 있는 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도민 복리증진 위한 조정자 역할 충실”

운영위원회

충남도의회는 지난 5일 제338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방한일 의원(예산1)이 39표를 받아 당선됐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와 사무처,



방한일 위원장



이철수 부위원장

의회 소관 조례, 의회 운영에 관한 규칙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지사와 교육감이 제출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등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한다.

방한일 운영위원장은 “일하고 싶은 의회, 활기 넘치는 의회, 행복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사무처 직원들과 힘과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만들 것”

윤리특별위원회

충남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 위원장에 윤희신(태안1) 의원이 선출됐다.

도의회는 지난 5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윤리특위 제1차 회의에서 윤희신 의원을 위원장으로, 신한철 의원(천안2)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했다.

윤리특위는 도의원의 윤리심사와 징



윤희신 위원장



신한철 부위원장

계·자격을 심사하며, 도의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자율적 위상을 정립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앞으로 윤리특위는 윤 위원장과 신

부위원장을 비롯해 오인환 의원(논산2), 김민수 의원(비례), 안중혁 의원(천안3), 이완식 의원(당진2), 이현숙 의원(비례), 주진하 의원(예산2), 지민규 의원(아산6) 등 9명이 2023년 7월 4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윤 위원장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고, 도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바닷모래 채취 중단·어업인 생존권 보장”

정광섭 의원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가 서해안의 산란장과 성육장(成育場)에 대한 무분별한 바닷모래 채취로 어업인의 생존권이 위협받자

정부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12일 제33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이 대표 발의한 ‘바닷모래 채취 중단과 어업인들의 생존권 보장 촉구 건의안’

을 채택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태안군에서 최근 한 조합이 ‘골재채취법’을 근거로 모항항 서쪽 16km 해역에서 모래를 채취하고자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신청을



정광섭 의원

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며, 충남도는 골재채취 예정지의 해양공간

했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바닷모래 채취 단지 지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

협의해야 하며, 충남도는 골재채취 예정지의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를 해양수산부에 요청한 상태다.

정 의원은 “바닷모래 채취로 변형된 해저지형은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해 어장훼손 피해를 복구하기 어렵다”며 “무분별한 바닷모래 채취 정책을 중단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제339회 임시회 5분발언

“균형발전 정책 보완 필요”



김명숙 의원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청양)은 12일 제33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민선 8기 김태흠 도지사의 도정과제와 맞물려 추진될 ‘제4차 충청남도 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해 지역 간, 산업 간 균형발전 정책의 보완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북부스마트산업권이나 충남혁신도시권, 해양산업권, 국방·웰빙산업권은 국가 기간사업 수준의 미래지향적 경제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산업·경제 분야가 낙후된 공주, 부여, 청양의 K-바이오 산업권은 농축산업이 주요 사업으로 계획돼 있어 지역 간 산업 양극화가 우려된다”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권역별 양극화와 시·군별 GRDP 성장률 격차를 줄이고 근로소득 불평등을 줄여 마을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양봉산업 피해대책 시급”

방한일 의원(예산1)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이 양봉농가 피해 대책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2021년 겨울 해충과 기후변화 등으로 전국 꿀벌 78억 마리가 사라져 큰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른 손실규모가 전국적으로 975억 원에 달하고, 충남의 경우 28만 3000군 중, 10.4%에 해당하는 2만 9000군이 폐사해 총 73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꿀벌이 멸종하면 인류도 4년 안에 사라진다”는 아인슈타인의 발언을 인용하며, 양봉산업의 위기가 식량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 의원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봉농가를 지키고 양봉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센터 필요”



안중혁 의원

안중혁 충남도의원(천안3)은 12일 제33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타 지역에서는 이미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센터가 존재하지만 충남의 수부도시인 천안에서조차 공식적으로 운영·관리되는 센터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장애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같은 기관을 만드는 건 시간과 노력이 많이 걸리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인정·장애인시설·아동보호시설 등 생수통 교체가 어려운 이들이 거주하는 기관·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하고, 이를 대신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내포 축산악취 해결 촉구



이상근 의원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은 12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 완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축산악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지금도 내포신도시 주민들은 축산악취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축산악취 때문에 우울증을 호소하는 주민들도 계시고, 심지어 축산악취 때문에 내포신도시를 떠나는 주민들도 다수 생겨났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 의원은 “현재 홍성군은 사조농산 부지에 국가산단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국가산단을 사조농산 부지에 유치하면 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사조그늘 보상 문제 해결, 내포신도시 주민들의 축산악취 고통 해방 등 1석 3조의 기사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당진 1호선 지방도 승격 촉구

최창용 의원(당진3)

충남도의회 최창용 의원(당진3)은 1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당진시의 핵심 현안인 시도 1호선의 지방도 승격과 확·포장 공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의원은 “당진시도 1호선의 지방도 승격이 18년째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로법에 의하면 도청소재지에서 시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를 도지사가 지방도로 지정·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정·고시권자인 도지사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편도 1차로에 제한속도 60km인 이 도로는 S자형 구간이 많아 정체가 잦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추월해야 한다”며 “특히 영농철 농기계 운행이 많은 때는 협소한 도로폭으로 다수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당진시도 1호선의 확·포장공사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AI융합 지역특화 산업 발전 방안 마련”

기획경제위원회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명숙)는 13일 제339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과 충청남도개발공사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했다.

이지운 위원(비례)은 충남과학기술혁신포럼(씨애포럼)과 관련해 “과학기술 및 정책 현안 관련 정보구축과 제공을 통해 산학연 간 네트워크 강화에 더 주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운 위원(계통)은 “국방산업 단지 추진과정을 청취하며, 충남의 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육성포럼 및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등 충남만의 특화 전략산업으로 키워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종혁 위원(천안3)은 백석농공단지 스마트혁신센터 조성사업과 관련 “기존건물을 현대화해 입주기업의 기술혁신과 제조혁신을 견인할 스마트제조 공동플랫폼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 “차량용 융합반도체 혁신 생태계 구축과 관련한 예비 타당성조사 기획연구는 현시점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충남과 학, 산업체 특성에 맞는 충남의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기여할 수 있는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이 되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윤기형 위원(논산1) “우리도 예산중 과학기술 예산은 0.3%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면서 “지방주도의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충남도에 맞는 중장기 발전전략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은 AI 융합 지역특화산업 관련해서 “실증랩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항상성과 효율 정도를 높이기 노력해달라.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스마트팩토리를 적용해서 효율이 10배정도 증가했다고 한다. 적극적인 자료 검토를 통해 충남도 향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숙 위원장(청양)은 “기구현황을 살펴보면서 진흥원이 개원하면서부터 장기적으로 공식 중인 부장, 실장급 자리에 대한 책임이 진흥원장에게 있다”고 질책했다. 또한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하면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없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최대한 기구의 안정화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220만 도민이 행복한 과학기술 사회구현을 위한 기능을 위해 처음 출발하는 기관으로 지켜보고 있으니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민 문화향유 증대 정책 고민”

행정문화위원회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옥수)는 13일 제339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 및 충남도서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김옥수 위원장(서산1)은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는 물론 소통과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증대시킬 수 있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내실있게 추진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상근 부위원장(홍성1)은 “지방문화원의 향토문화 활성화라는 본연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것 같다”며 “지속 가능한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지방문화원의 역할과 향토문화 발굴을 위해 지자체와 협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안장현 의원(아산5)은 “코로나19 시대에 발맞춘 지역의 소규모 문화예술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나 실적이 저조했다”며 “예술계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도민들의 문화향유가 증진되고 지역문화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인환 의원(논산2)은 “다양한 외국인 노동자

의 유입이 증대되고, 향후 할랄시장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외국인 관광 유치를 위해 새롭고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기영 의원(공주2)은 코로나19로 문화예술계가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하며 “모든 행사가 취소돼 도내의 문화예술인들에게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며 “문화예술인들의 보다 나은 활동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많은 예산이 각 분야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수 의원(천안9)은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도민의 삶의 질이 결정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도민의 문화권 확보를 중점으로 하는 정책연구를 통해 내실있는 문화·체육·관광 정책 추진에 노력해 달라”고 제언했다.

이현숙 의원(비례)은 “중부농축산물류센터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최광희 의원(보령1) “관광사업 발전에 있어서 트렌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관광사업 트렌드를 파악해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피력했다.

“여성·청소년·다문화가정 정책 강화해야”

복지환경위원회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응규)는 13일 제12대 의회 첫 업무보고에 들어갔다. 업무보고는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연구원, 청소년진흥원을 시작으로 18일까지 총 4일간 진행된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은 “여성과 청소년 정책은 미래를 위한 핵심 정책만큼 여성가족정책관이 복지 정책의 한 축을 담당해 도민을 위한 복지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아산6)은 “타 시·도 벤치마킹을 통해 계층별 1인가구 정책을 마련해 사회안전망 확보에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방한일 의원(예산1)은 “도가 돌봄공동체 사업의 도민참여예산에 관심 있는 시·군을 중심으로 시범운영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태 의원(천안10)은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과 관련해 자치단체의 정책 방향 혼란을 우려하며 “정부의 방향에 개의치 말고 기존 사

업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복지 지원 대상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양경모 의원(천안11)은 “전체 여성 대비 취업희망자의 실태조사가 미흡한 것 같다. 정확한 자료를 확보해 소외된 ‘중장녀여성’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해달라”고 제언했다.

이연희 의원(서산3)은 “충남도의 성평등 지수가 전국 하위다”라며 “각자의 위치에서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이어가 달라”고 말했다.

이철수 의원(당진1) “다문화 가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고, 이들이 보편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한국사회 적응 지원 등 다문화 가정을 포용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병인 의원(천안8)은 여성가족정책관의 가족센터 직영운영과 민간위탁 등 운영방법 이원화에 대해 질의하며 “민간위탁운영과 직영운영의 성과평가를 실시해 더 나은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역 농산물 유통정책 마련해야”

농수산해양위원회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정광섭)는 13일 농림축산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진행했다.

정광섭 위원장(태안2)은 “서산·태안·청양이 마늘을 많이 재배하는데 이런 농산물을 다른 지역으로 가지고 간다. 우리 지역에서 유통이 이뤄질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춰야 한다”며 마늘 경매장 신설을 주문했다.

오인철 위원(천안7)은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에 대한 대전제는 동의하나 단순히 공장 옮기듯이 옮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이전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은 “양봉농가는 늘어나고 있으나 밀원수가 부족하다”며 “꿀이 많이 나오는 나무가 아카시아인데 도유립지에 밀원수를 식재해서 양봉산업이 활성화될 수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수 위원(비례)은 “농업에 대한 여성·청

년·외국인 인력은 한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달라”며 “외국인 기숙사 지원과 관련해 예산이 적어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데 관련 시·군과 협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신영호 의원(서천2)은 “농업정책이 너무 ‘대농’ 위주로 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대농은 산업에서의 농업이고 고령농, 소농분들은 복지로서 농업으로 경영인으로 가고자 하는 소·중농에 대한 지원 필요하다”고 소·중농에 대한 지원책을 강조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은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지원과 관련해 3억 원의 자금으로 지원된다고 하는데 이익창출이 없어 파산, 자살 등 문제가 있다”며 이익창출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주문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은 내포지역에 충남의 공영도매시장 건립을 건의하며 농산물 유통은 농업에 있어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만큼 공영도매 시장에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농촌의 열악한 주거 여건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당부했다.

“폭염·폭우 등 재난으로부터 지켜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서)는 13일 재난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2년 주요업무보고에서 안전한 충남 실현을 위하여 폭염종합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최창용 위원(당진3)은 “현재 시·군별의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아 재난예방에 투자하는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나 국가 및 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은 “도내 지역 사회안전지수가 낮은 시·군에 대해 도민의 안전과 직결 지속적인 정책을 발굴해해 지역사회안전지수를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이만식 위원(당진2)은 “삼교천의 범람예방 대책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며 특히 준설사업 사업추진사항을 내실 있게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은 “최근 폭염경보 인하여 온열환자등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도내 주요도시에 폭염저감시설인 쉼터운영 및 스마트 그늘

막을 설치기획 단계에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 설치하고 아울러 학생들의 통학로등에도 적극적으로 설치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광철 위원(공주1)은 “소방차량과 소방장비의 노후로 인해 도민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체하라”고 주문했다.

김도훈 위원(천안6)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후 변화된 것과 관련 의용소방대원의 처우 개선에 대하여 질의했다.

이용국 위원(서산2)은 서산소방서의 지리위치지 여건이 신속한 출동과 사이렌 소음 민원등으로 열악하다면서 서산소방서의 신속한 신축을 요구했다.

김기서 위원장(부여1)은 심폐소생술 보급 확대를 위해 도 타실국과의 협업하고, 화목보일러 사용으로 인한 화재가 빈발하고 있다면서 화재예방대책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도내 문화재의 화재예방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며 적극적인 소방안전대책 추진을 강조했다.

학교 현장 교권보호 대책 주문

교육위원회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는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충남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다.

1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편삼범 위원장(보령2)은 “교원의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 및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교권 확립과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안정적인 수업권 보장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은 “면밀한 학생수용계획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이 학습권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홍성현 위원(천안1)은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 증가 추이를 고려하여 천안지역의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박미옥 위원(비례)은 “위생적인 급식환경 관리와 급식종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

경 조성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은 “다양한 직종의 구성원들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즐겁게 일하는 근무환경이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신순옥 위원(비례)은 “최근 체험학습을 신청한 뒤, 가족과 함께 떠난 초등학교생이 끝내 학교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교외 체험학습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은 “잠자는 학생을 깨워도 아동 학대를 주장하며 되레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교권이 학생인권보다 더 침해당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 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은 “기관 주도의 획일적인 예산편성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에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2022.
7. 20.(수)~
7. 24.(일)

보령요트경기장



2022 아시안컵 보령국제 요트대회

7월에 대천앞바다를 수놓을
바다의 향연에 초대합니다.

대회종목

킬보트종목(J70급-국가대항전),
딩기종목(옵티미스트-오픈)

주최 충청남도요트협회
주관 보령국제요트대회조직위원회

